

계곡의 이단아

알렉스 카프, 파시즘을 두려워한 사람이 세운 감시 제국

김경진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알렉스 카프 (Alex Karp)

서문

한 사람을 좌파인지 우파인지, 선인인지 악인인지로 가르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그런 분류를 번번이 빠져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민권 운동가 부모 밑에서 자란 진보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 기술 회사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파시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시즘이 손에 쥐면 누구보다 무서워질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표를 준 사람이, 민주당을 향해 가장 날 선 비판을 쏟아냅니다. 어느 한 문장으로 그를 가두려 하면, 그는 그 문장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이 책은 그 모순을 봉합하지 않습니다. 모순을 풀어야 할 숙제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이루는 재료로 봅니다. 글자를 더디게 읽던 혼혈 소년이 어떻게 철학자가 되었는지, 철학자가 어떻게 억만장자 CEO가 되었는지, 파시즘을 연구한 학자가 어떻게 전장의 소프트웨어를 파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 인간의 일생과 함께 9·11 이후의 안보 국가, 데이터가 권력이 된 시대,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이 얽히는 무대가 함께 보입니다.

저는 카프가 옳았는지 그른지를 이 책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읽는 분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쉽게 미워하거나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불편함을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이 책의 약속입니다.

책을 덮을 때 답이 아니라 질문이 남기를 바랍니다. 데이터를 쥔 사람이 세상을 지킬 수도, 가둘 수도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말기고 무엇을 말기지 말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카프라는 한 사람을 세워둡니다.

김경진

목차

서문

1장 아웃사이더의 탄생
진보주의 가정, 혼혈, 그리고 난독증

2장 철학을 사랑한 청년
해버퍼드, 스탠퍼드 로스쿨, 그리고 피터 틸

3장 프랑크푸르트의 사회 이론가
박사 학위와 학문의 길

4장 철학자에서 억만장자 CEO로
틸의 전화 한 통과 팔란티어의 창립

5장 자유 민주주의의 방패
국방과 안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6장 기술 공화국의 선언과 실리콘밸리 비판
앱의 폭정에 맞선 한 진보주의자의 반역

7장 기인의 일상
태극권, 스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원동력

제1장 아웃사이더의 탄생

필라델피아의 어느 주말, 어린 알렉스 카프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또 거리로 나섰습니다. 피켓을 든 어른들 사이에서 그는 키가 작았고, 구호의 뜻을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반전 시위였는지 민권 집회였는지, 그날의 깃발이 무엇을 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카프는 훗날 자신의 유년기를 회고하며, 어린 시절의 절반 이상을 부모를 따라 시위 현장에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주말에 야구장을 가는 동안, 그는 행진하는 어른들의 다리 사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균열을 먼저 배웠습니다.

행진은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시위는 가족 행사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집에 두고 신념을 실천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나가 신념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진 대열의 함성, 경찰의 시선, 팻말에 적힌 분노의 문장들. 글자를 더디게 읽던 아이에게도 그 풍경의 온도만큼은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세상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싸워서 바꾸는 것이라는 감각. 그것이 카프가 받은 첫 교육이었습니다. 교과서보다 먼저 거리가 그를 가르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학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유대교 안식일의 식탁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음식이 차려진 그 자리에서 오간 것은 가벼운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카프의 기억에 따르면, 식탁의 화제는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값싼 노동력을 끌어들이며 미국 노동자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에 대한 격론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가 한 편의 강연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알아듣기에는 버거운 말들이 오갔지만, 그 열기만큼은 몸으로 스몄습니다. 차별에 맞서 싸우려는 본능을, 카프는 어머니 쪽에서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본능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자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묘한 훈련이었습니다. 매주 두 번, 어린 카프는 어른들이 미국 사회의 구조를 두고 벌이는 논쟁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가, 권력은 어디에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다른 집 아이들이 만화를 보던 시간에 그는 사회 이론의 초보 수업을 들은 셈입니다. 훗날 그가 독일로 건너가 사회 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것을 떠올리면, 그 길의 출발선은 대학 강의실이 아니라 필라델피아의 안식일 식탁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캐드먼 카프(Alexander Caedmon Karp)는 1967년 10월 2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곧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옮겼고, 그는 그곳에서 남동생

올리버 벤 카프와 함께 자랐습니다. 가운데 이름 캐드먼은 흔치 않은 이름입니다. 훗날 그가 런던에서 세운 첫 회사의 이름도 캐드먼이 됩니다. 자기 이름의 한 조각을 회사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는다면, 카프의 경우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이룬 가정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요셉 카프(Robert Joseph Karp)는 유대인 혈통의 임상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아이들의 몸을 진찰하고 병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쪽 가문은 독일에서 건너온 이민자 집안으로, 오랜 세월 상업 미술과 직물업에 종사한 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천을 짜고 무늬를 입히고 물건을 사고파는 일. 손으로 만들고 눈으로 보는 일이 집안의 오랜 생업이었던 셈입니다. 의사가 된 로버트는 그 생업의 전통에서 한 걸음 벗어났지만, 무언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다루는 손끝의 감각만은 그 가문의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리아 제인스 카프(Leah Jaynes Karp)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였습니다. 그녀는 한 분야의 변두리에 머문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가였고, 주로 흑인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1980년대 초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흑인 아동 연쇄 납치·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이 그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스물 명이 넘는 흑인 아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그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의 깊은 상처였습니다. 리아 카프는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캔버스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청진기를 들고 아이들의 몸을 돌봤고, 한 사람은 붓을 들고 아이들의 상처를 그렸습니다. 직업은 달랐지만 시선은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약하고 다치기 쉬운 존재들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쪽으로는 또 한 사람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외삼촌 제럴드 제인스(Gerald D. Jaynes)입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흑인 예술가 어머니와 흑인 경제학자 외삼촌, 그리고 유대인 의사 아버지. 카프가 자라난 집안의 지적 지형도는 이렇게 넓고 깊었습니다. 남동생 벤 카프 역시 훗날 학자의 길을 걸어 일본 도쿄로 건너가 살게 됩니다. 한 집안에서 의사와 예술가와 경제학자와 학자가 나왔습니다. 이 집의 공기에는 늘 무언가를 깊이 파고드는 기질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뜻밖의 면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 미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미술품을 모았을 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미술을 공부하려고 해마다 석 달씩 한국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1970~80년대 미국에서 흑인 여성 예술가가 한국을 그렇게 드나들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미국인에게 멀고 낯선 나라였습니다. 그런 곳을 매년 석 달씩 찾아가 그 나라의 붓질과 색을 배우려 한 사람이 카프의 어머니였습니다. 카프가 자라난 집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경계를 넘는 일이 일상이던 집. 인종의 경계, 직업의 경계, 나라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이 집안이 경제적으로 특별히 부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문화적 자산만큼은 넘쳤습니다. 카프 자신도 가족의 구성이 인종으로 보나 문화로 보나 워낙 파격적이어서, 이웃들 눈에는 "완전한 괴짜 집단"처럼 비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집에 오기 전에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경고를 들어야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농담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카프의 가족은 1970년대 미국 백인 중산층의 표준에서 한참 비껴서 있었습니다. 유대인 의사 아버지, 흑인 예술가 어머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혼혈 형제. 길 건너 이웃집의 풍경과는 어느 것 하나 닮지 않은 가족이었습니다.

집 안의 일상도 보통의 미국 가정과 달랐습니다. 카프 가족은 매주 박물관을 가거나 문화 행사에 참석하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예술이 집안 공기였습니다. 그림과 음악과 책이 거실의 가구처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몰입이 얼마나 강했던지, 카프는 독립한 뒤로 무려 10년 동안 박물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농담 삼아 회고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은 음식은 한동안 쳐다보기도 싫은 법입니다. 어린 시절 예술에 흠뻑 젖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 한동안 예술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사랑과 질림은 종종 한 뿌리에서 자랍니다.

이 가족의 기질을 한눈에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반려견 로지타의 입양입니다. 가족이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을 때, 직원 하나가 당장 안락사를 시키고 싶다며 진저리를 치는 개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특이했습니다. 그 개는 사람만 열 수 있는 자물쇠를 혼자 풀고 탈출할 뿐 아니라, 다른 개들의 우리 자물쇠까지 죄다 열어 함께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보호소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직원에게는 통제 불능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카프의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선언했습니다. "저 개가 우리 개다." 자물쇠를 풀고 동료까지 풀어주는 영리하고 반항적인 개. 규칙을 비웃고 갇힌 것들을 풀어주는 개. 그 집에 그보다 잘 어울리는 식구는 없었습니다. 로지타는 그렇게 카프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갇힌

자물쇠를 여는 개를 식구로 들인 집에서, 한 아이가 자랐습니다.

따뜻하고 활기찬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문 밖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집 안에서 보호받던 아이는 집을 나서는 순간 다른 신분이 되었습니다. 백인 유대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서, 카프의 정체성은 어느 한 집단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두고 "형태가 불분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amorphous,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종적으로 모호했고, 유대인 공동체에 끼기에는 유대인다운 면서도 어딘가 이질적이었습니다. 흑인 사회에서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카프의 회고는 짧고 정확합니다. "어떤 흑인들은 나를 흑인으로 여겼고, 어떤 흑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어느 쪽에서도 그는 절반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절반은 같은 편이고 절반은 낯선 사람. 그 어중간한 자리가 그의 자리였습니다.

동생과의 차이도 이 분열을 더 뚜렷하게 비춥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였지만, 벤은 자신을 온전한 흑인 청년으로 강하게 정체화한 반면, 알렉스는 점차 유대인으로서의 자각에 더 무게를 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두 형제가 서로 다른 정체성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한 핏줄에서 갈라진 두 갈래의 길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혼혈이 짊어지는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혼혈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결정해야 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라야 하는 정체성.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형제는 서로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프는 이 분열을 끝내 봉합하는 대신 자기 식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나를 그냥 '나'로 본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는 모든 집단에 영광을 느낀다."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 찾아낸 타협이었습니다. 어느 한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을 받아주는 모든 집단에 감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속을 단념한 자리에서 그는 일종의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깃발 아래에도 완전히 서지 않는 사람은, 모든 깃발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 감각을 누그러뜨려 주지 못했습니다. 카프는 필라델피아의 영재 학교인 센트럴 고등학교를 1985년에 졸업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 뒤 펜실베이니아의 해버퍼드 대학으로, 다시 스탠퍼드 로스쿨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대학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학력을 쌓았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주류에 속한다는 안정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거쳐 간 모든 기관에서 나는 늘 남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이곳을 요령껏 헤쳐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결코 이 집단의 진짜 일부가 될 수는 없다." 그는 무의식의 밑바닥에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그 어떤 집단도 본질적으로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전제였습니다. 명문 학교의 졸업장도 이 전제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는 자신이 손님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느꼈습니다.

소속감을 어디서 찾았는가를 보면 카프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센트럴 고등학교 시절 그와 제일 가깝게 지낸 친구들은 한국계였고, 첫 여자친구도 한국인이었다고 그는 회고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을 드나들던 그 집안의 아이가, 학교에서도 또 다른 경계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다른 변두리의 사람들과 먼저 통합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비켜선 사람끼리는 말이 빠릅니다. 어느 집단에도 온전히 들지 못한 소년은, 자기처럼 경계에 선 사람들 곁에서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소속의 부재가 카프를 외부에서 밀어낸 힘이었다면, 그를 안에서부터 다르게 만든 또 하나의 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앓은 심한 난독증입니다. 혼혈이 그를 집단의 경계 밖으로 밀어냈다면, 난독증은 그를 평범한 학습의 경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두 개의 추방이 한 아이 위에 겹쳤습니다.

카프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난독증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집안에서 자란 똑똑한 아이가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시절의 그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비밀이었습니다. 난독증은 단어를 읽고 쓰는 일을 더디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따르는 표준 학습법, 모범 답안, 정해진 길을 그대로 밟는 것을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교과서의 글자를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체계에 녹아들 때, 카프는 그 텍스트 중심의 질서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카프 자신이 난독증을 설명하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는 난독증을 분류 체계나 텍스트와의 관계가 약해진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보통 사람은 글이나 규칙을 읽을 때 그 텍스트와 일대일로 들러붙습니다. 텍스트가 곧 그 사람이 됩니다. 규칙을 읽으면 규칙이 몸에 배고, 분류를 익히면 그 분류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박사 학위를 받고 글을 잘 쓰게 된 뒤에도 끝내 텍스트와 일대일로 결합하지 못합니다. 글자와 규칙과 분류 체계 사이에 늘 작은 틈이 남습니다. 그 틈 때문에 카프는 남들이 당연하게 따르는

플레이북을, 곧 정해진 모범 답안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따를 수 없으니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존의 플레이북을 익힐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스스로 발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명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배우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카프는 1만km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에 10만km의 힘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열 배의 연산을 돌려야 하는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극도로 엄격하고 규율 잡힌 생활을 강제했습니다. 흐트러지면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까지 겹쳤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일이 그에게는 큰 과제였습니다. 그는 과거 대화의 3분의 2를 공상으로 흘려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 머릿속은 다른 곳을 떠돌았습니다. 그 흩어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그가 택한 것이 태극권이었습니다. 매일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한 점에 모으는 훈련. 훗날 그가 명상과 태극권에 매달리는 기인으로 알려지는 것도, 그 뿌리는 어린 시절의 이 산만함과의 싸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약점이 뜻밖의 무기를 함께 길렀습니다. 카프는 자신만의 정보 처리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그의 가족들은 풍부한 데이터를 쌓아 그 위에 차근차근 논리를 세워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데이터가 희소하거나 아예 없는 자리, 정보의 끝자락에서 오히려 강했습니다. 남들이 이틀을 꼬박 매달려야 풀 문제를, 그는 몇 안 되는 단서만으로 직관해 1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형화된 지식을 외우는 데는 약했지만, 자료가 부족한 낯선 상황에서 패턴을 읽고 남들보다 몇 년 앞서 판단하는 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능력이었습니다. 모두가 지도를 들여다볼 때, 그는 지도가 없는 곳에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못하는지 뼈저리게 아는 것도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약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카프는 자신이 약한 분야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제일 잘하는 한 가지에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못하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대신, 잘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전략. 이것은 약점에서 태어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약점이 분명한 사람은 강점도 분명해집니다.

전환점은 한 사람의 손에서 왔습니다. 센트럴 고등학교 시절, 엘리트 학교에 다니면서도 남들과 다른 학습 방식 탓에 고전하던 카프를 한 조연자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능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학교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읽기에서 막혔던 아이가 실은 남다른 머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끌어주었습니다. 카프는 이 경험을 평생 깊은 경외심으로 간직합니다. 한 사람의 눈 밝은 어른이 한 아이의 인생 경로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글자에 갇혀 자기 안의 것을 보지 못하던 아이에게, 그녀는 거울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비밀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낸 계기는 의외로 사소했습니다. 어른이 된 어느 날, 독일에 있는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카프는 무심코 고백했습니다. "그나저나, 나 난독증이야." 수십 년을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친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렇구나. 소금 좀 건네줄래?" 그 순간 카프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평생 부끄러워하며 감춰온 그 사실이, 정작 남들에게는 소금을 건네는 일만큼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타인의 시선에서 풀려나 자신의 신경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화를 카프가 언급한 시점들로 미루어, 커밍아웃의 순간은 대략 2010년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그가 난독증을 두고 남긴 평가는 거칠고 솔직합니다. 그것이 "나를 망쳐놓았지만, 동시에 날아오를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 안에 진실의 양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망가뜨린 것도 사실이고, 날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훗날 카프는 이 약점을 약점이라 부르기를 그만둡니다. 그는 난독증 같은 신경다양성을 강점으로, 더 나아가 시대의 무기로 끌어올립니다. 표준에서 벗어난 뇌가 표준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믿음입니다. 남들과 같은 플레이북을 쓸 수 없었던 사람은, 그래서 플레이북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카프는 이 역전을 유쾌한 비유로 풀어냅니다. 마치 북유럽 신화의 신 오딘이나 로키가 하늘에서 내려와, "카프, 너 어릴 때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세상 전체를 난독증 환자에게 딱 맞게 만들어 주마"라고 선언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를 괴롭힌 약점이, 어른이 된 그에게 세상을 남다르게 보는 눈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가 자신의 책 제목을 처음에는 『난독증 환자의 복수』로 지으려 했다는 농담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글자에서 소외되었던 아이의 복수. 그 복수의 윤곽이 무엇인지는 이 책의 뒷장들이 차차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씨앗이 유년기에 심겼다는 것만 짚어둡니다.

세 겹의 정체성이 한 아이 위에 포개졌습니다. 유대계와 흑인의 혼혈, 급진적 진보주의 가정의 아들, 그리고 심한 난독증을 가진 학생. 이 셋은 모두 미국 사회의 주류 기준에서 벗어난 자리였습니다. 인종에서 벗어났고, 정치에서 벗어났고, 학습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아웃사이더가 되기에 충분한데, 카프는 셋을 한꺼번에 짊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 밑바닥에는 한 가지 가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나를 지켜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파멸에 대한 경계, 박해의 대상이 될 조건을 늘 점검하는 습관. 이것은 비관이라기보다 생존의 자세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 울타리를 세우는 법을 궁리하게 됩니다.

이 자세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의 한 인터뷰에서 카프는 자신의 취약함을 섬뜩한 언어로 옮겼습니다. "나는 늘 생각했다. 이 세상에 파시즘이 닥친다면, 제일 먼저, 아니면 두 번째로 총살당해 벽에 매달릴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라고." 유대인이자 흑인 혼혈인 자신이 박해의 1순위가 되리라는 계산을, 그는 농담이 아니라 빈틈없는 자기 인식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끌려가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벽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그의 핏줄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시위 현장에서 배운 미국의 균열이, 어른이 된 그의 안에서 이런 문장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역설의 씨앗이 있습니다. 파시즘이 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이 남자는, 훗날 그 파시즘이 손에 쥐면 누구보다 무서워질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박해를 두려워한 사람이 감시의 기술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카프가 품은 공포는 한낱 상처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틀어,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서구 사회의 법치와 자유를 압도적인 군사 기술로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지키려면 그 사회가 적보다 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두려움이 신념의 연료가 된 것입니다. 훗날 그가 미군을 두고 미국 사회에서 제일 먼저 인종 통합을 이뤄낸 진정한 능력주의 기관이라고 찬사를 보낸 것도, 소외와 차별에 예민했던 이 유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연결은 카프 본인이 명시적으로 한 진술이라기보다, 그의 발언들을 잇대어 본 해석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신념이 옳았는지, 그가 만든 도구가 약한 자를 지켰는지 아니면 새로운 위험을 낳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물음은 이 책이 끝까지 안고 갈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모순의 출발점이 필라델피아의 한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위 현장과 안식일 식탁, 흑인 어머니와 유대인 아버지, 자물쇠를 푸는 개와 글자를 못 읽는 아이. 이 풍경 속에서 한 사람의 세계관이 빚어졌습니다.

1967년 뉴욕에서 진보주의 가정의 혼혈 소년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절대적 소외감을 생존의 본능으로 바꾸며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줄 집단이 없다고 믿었기에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궁리했고, 표준의 길이 막혔기에 자기만의 길을 냈습니다. 완벽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는 종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문턱에 걸터앉은 사람은 방 안의 풍경과 방 밖의 풍경을 동시에 봅니다. 카프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 봄이 어떤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는지는, 그가 철학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글자를 더디게 읽던 소년이 평생 붙들 무기를 발견한 곳. 그곳은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웨이커 대학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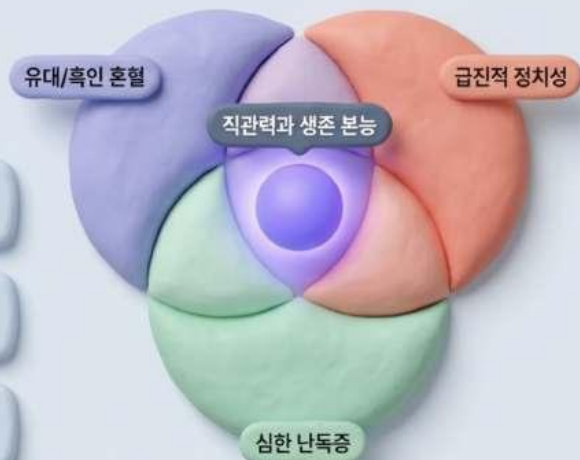
제1장: 세 겹의 경계선에 선 소년

주류 사회 밖으로 밀려난 세 겹의 소외감은 스스로를 지키는 생존 본능과 직관의 무기로 자라났습니다.

1967년 뉴욕에서 유대인 아버지와 흑인 예술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필라델피아에서 성장.

중증 난독증으로 텍스트 중심의 표준 학습 배제.
데이터가 희소한 상황에서 패턴을 읽고 판단을 내리는 직관 발달.

파시즘이 오면 처형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생존의 위협은 서방 세계의 안보를 압도적 군사 기술로 방어해야 한다는 철학의 뿌리로 연결.



© NotebookLM

제2장 철학을 사랑한 청년

펜실베이니아주 해버퍼드. 필라델피아에서 서쪽으로 차로 삼십 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1985년 가을, 열일곱 살의 카프가 이곳 대학의 교정에 도착했습니다. 해버퍼드 대학은 한 학년이 삼백 명 남짓한 작은 학교입니다. 1833년 퀘이커 교도들이 세운 곳으로, 신앙의 흔적이 학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 없이 학생이 양심에 따라 시험을 치르는 명예 규약이 지금도 살아 있고, 수업은 교수와 학생이 책상을 마주하고 묻고 답하는 작은 세미나로 굴러갑니다. 큰 강당에서 수백 명이 받아 적는 대형 강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끝까지 따져 묻는 학교였습니다. 글자를 더디게 읽는 아이에게, 이보다 잘 맞는 곳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카프는 철학을 택했습니다. 돈벌이와는 거리가 먼 전공입니다.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사업가가 되는 길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옳음이란 무엇인가, 사회는 어떻게 굴러가는가 같은 답 없는 물음을 평생 붙들고 사는 길입니다. 부모가 들으면 한숨을 쉴 법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의사 아버지를 둔 집의 아들이 의대로 가지 않고, 훗날 좀 손에 쥐어지지 않는 학문으로 향했으니깐요. 그런데 이 선택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식탁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를 두고 격론이 오갔던 그 집의 아이였습니다. 시위 현장의 깃발 아래에서 미국의 균열을 먼저 배운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철학은 낯선 외국어가 아니라, 집에서 쓰던 모국어에 가까웠습니다.

해버퍼드는 그 모국어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작은 학교의 철학 수업은 거대한 이름들의 계보를 외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이 정의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칸트가 도덕을 어디에 세웠는가, 그런 물음을 학생 예닐곱이 둘러앉아 한 학기 내내 묻고 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교수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 와서 다른 학생에게 두들겨 맞는 구조였습니다. 카프는 이 두들겨 맞는 구조를 좋아했습니다. 글자를 더디게 읽는 그였지만, 일단 한 개념을 손에 쥐면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싸움. 그것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책장을 빠르게 넘기지는 못해도, 한 문장을 두고 한 시간을 다룰 수는 있었습니다.

난독증도 한몫했습니다. 표준 학습법이 막힌 아이는 다른 통로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기만의 방식을 일찍부터 길렀습니다.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로 읽어 내려가는 일은 그에게 고역이었지만, 하나의 개념을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돌려보며 그 구조를 통째로 붙드는 일에는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추상의 세계에서는 글자의 더딤이 약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텍스트의 표면에 갇히지 않고 그 아래의 뼈대를 보는 힘이 되었습니다. 철학은 그 힘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버퍼드의 작은 교실 안에서도, 카프는 자신이 끝내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이 거쳐 간 모든 기관에 대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곳을 요령껏 헤쳐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결코 이 집단의 진짜 일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버퍼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공기를 마시고 그곳의 언어를 익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비켜서 있었습니다.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은 종종 더 멀리 봅니다. 안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보지 못하는 벽의 균열을, 문턱에 걸터앉은 사람이 먼저 알아챱니다.

훗날 카프는 자신이 어디서 많이 배웠는지 순서대로 꼽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필라델피아의 센트럴 고등학교, 둘째가 해버퍼드, 그다음이 스탠퍼드, 그리고 마지막이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대학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대학들을 뒤에 두고, 고등학교와 작은 리버럴 아트 칼리지를 앞에 둔 이 순서가 그라는 사람을 잘 보여줍니다. 그에게 배움은 학교의 명성과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키운 것은 거대한 기관이 아니라, 자신을 한 사람으로 마주해 준 작은 자리였습니다.

해버퍼드의 명예 규약은 그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쳤습니다. 감시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시험 감독관이 없는 방에서 학생은 스스로를 감독해야 합니다. 규약을 지키는 것도 어기는 것도 오롯이 양심의 몫입니다. 신뢰가 제도가 된 학교였습니다. 어린 카프는 그 신뢰의 공기 속에서 사 년을 보냈습니다. 훗날 그가 감시와 신뢰,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 평생 줄타기를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 작은 웨이커 학교의 양심 규약은 묘한 복선처럼 읽힙니다. 다만 그때의 그는 그런 줄타기를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만났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1989년, 카프는 해버퍼드에서 철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물한 살이었습니다. 사회 이론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이미 그의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사업가나 기술자가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의 뿌리에는 식탁의 격론과 거리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부당함을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을, 그는 어머니 쪽에서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기질이 학문의 언어를 만나, 사회

이론가라는 꿈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 꿈을 좇는 길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고른 길은 뜻밖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카프는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입니다.

왜 법이었을까요. 법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이러했습니다. 법학 학위를 손에 쥐면 실제로 사람을 돕고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보주의자이자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여기던 청년이, 약자의 편에 서서 부당함과 싸우는 무기로 법을 골랐습니다. 이상주의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머릿속의 철학을 현실의 변화로 옮기려는 다리로 법을 본 것입니다.

순서를 짚어보면 이 선택의 무게가 더 잘 보입니다. 그는 1989년 해버퍼드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스탠퍼드로 향했습니다. 철학으로 학사를 받은 사람이 박사 과정으로 가지 않고 로스쿨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학문의 길에서 실천의 길로, 책의 세계에서 법정 세계로. 머릿속에만 있던 정의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엇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식탁에서 배운 분노를, 시위 현장에서 익힌 신념을, 이제 직업으로 바꿀 차례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부당한 자들과 법정에서 맞붙겠다는 그림. 거기까지는 깔끔했습니다.

그 다리는 무너졌습니다. 빠르게.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카프가 마주한 현실은 그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의 동기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일류 대형 로펌에 취업해 명성과 돈을 거머쥐는 일이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그 강박으로 뻑뻑했습니다. 누가 어느 로펌의 여름 인턴을 따냈는가, 누가 어느 판사 밑에서 재판연구원이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카프는 그 공기 속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스탠퍼드가 어떤 곳입니까.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곳을 졸업한 사람들이 구글을, 야후를, 훗날의 수많은 기업을 세웠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을 만큼 뻑뻑한 인맥과 기술의 그물이 그 교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무렵의 카프는 그 그물이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기 발밑에 금광이 있는데, 그는 그 위를 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과 사상, 그리고 끝없는 논쟁이었습니다.

그가 품고 온 이상주의는 빠르게 부서졌습니다. 사람을 돕겠다고 법을 배우러 왔는데, 정작 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의는 판례를 외우고 조문을 분석하는 기술의 연속이었고,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라는 물음은 강의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프는 차가운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돕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일에는 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좋은 변호사가 되어 약자를 돕겠다는 그림은, 처음부터 그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훗날 카프는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보낸 그 시간을 두고 자기 성인 시절 통틀어 최악의 삼 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교 공부를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강의실보다 책을 읽고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렌치를 돌리는 막일이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두가 향하는 길을 그는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로스쿨의 삼 년은 학문의 수련이 아니라, 억지로 채워야 하는 삼 년의 형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느낀 답답함에는 시대의 공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의 미국 로스쿨은 한 가지 성공의 그림을 학생들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 이름난 로펌에 들어가, 몇 해 안에 파트너가 되는 그림입니다. 누구도 그 그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삶인지, 자기에 맞는 삶인지를 묻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다들 같은 사다리를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 사다리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은 낙오자였습니다. 카프는 그 사다리 아래에 서서, 위로 줄지어 올라가는 동기들의 등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사다리 자체가 의미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일은 손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가 가는 길은 도리어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형기 안에서, 카프의 인생 전체를 바꿀 한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숙사. 같은 수업반. 그 안에 피터 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 앉았을 때의 풍경을 그려봅니다. 한쪽에는 유대계 흑인 혼혈의 진보주의자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를 신봉하고 자신을 사회주의자라 부르는 청년입니다. 맞은편에는 독일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자유지상주의자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학부 시절

이미 우파 매체 스탠퍼드 리뷰를 창간해 교내에서 악명을 떨친 자본주의자입니다. 좌와 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보다 더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묶었을까요. 둘 다 스탠퍼드 로스쿨이라는 곳을 경멸했습니다. 출세에 눈먼 동기들의 획일적인 분위기를, 두 사람 모두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경멸이 첫 번째 끈이었습니다. 두 번째 끈은 더 깊었습니다. 둘 다 논쟁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점잖게 의견을 주고받는 종류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기숙사 방. 체스판 위에 말이 놓여 있고, 맥주병이 옆에 굴러다닙니다. 두 청년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동기들이 로펌 면접 준비에 매달려 있을 그 시간에, 이 방의 두 사람은 죽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두고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이 마르크스의 소외된 노동을 꺼냅니다. 인간이 자기 노동의 결과로부터 떨어져 나가, 일하면서도 자기 삶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장 노동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부품처럼 돌아간다는 것.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카프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로스쿨의 동기들조차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로펌이라는 컨베이어벨트 위로 줄지어 올라가고 있다고. 털이 받아칩니다. 그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풍요를 보지 못하는 자의 투정일 뿐이라고. 사람들은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시장은 그 선택의 총합일 뿐이라고.

카프가 헤겔을 끌어옵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모순되는 두 생각이 충돌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사유입니다. 옳은 주장과 그에 맞서는 주장이 부딪히면, 둘 중 하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을 끌어안은 새로운 답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카프가 즐겨 꺼낸 것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일하는 법을 아는 쪽은 노예이고, 손에 흙을 묻혀 세상을 바꾸는 쪽도 노예라는 역설의 사유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뒤집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가. 그 물음을 카프가 털의 얼굴에 던집니다. 자기가 지금 펼치는 논리 자체가 헤겔의 변증법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털은 다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르네 지라르였습니다. 지라르는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철학자로, 인간의 욕망은 자기 안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고 따라 하는

데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모방 욕망입니다. 옆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면, 나도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부딪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을 가라앉히려고 사회는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골라 모두의 분노를 그에게 쏟아붓는다고 보았습니다. 틸은 이 사유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카프에게는 또 하나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독일의 실존 철학자로,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정작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 물음은 놓치고 산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사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자기가 진짜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캐묻는 철학입니다. 카프는 이 하이데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로스쿨 동기들이 바로 그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로펌, 좋은 연봉. 정해진 길을 의심 없이 밟으면서, 자기가 왜 사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들. 하이데거의 언어로 옮기면, 그들은 존재하면서도 존재를 잊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장의 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반대 자리에서 서로를 밀어붙였습니다. 틸은 욕망이 남을 따라 하는 데서 온다고 보는 지라르의 자리에 섰습니다. 카프는 모순의 충돌에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보는 헤겔과, 존재의 의미를 캐묻는 하이데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한쪽은 인간을 모방하는 동물로 보고, 다른 쪽은 인간을 모순을 끌어안고 의미를 찾는 존재로 봅니다. 둘은 같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니다.

카프는 이 논쟁을 한마디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야생동물처럼 싸웠다고. 점잖은 학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논리에 난 구멍을 사정없이 파고들고, 빈틈이 보이면 그곳을 물어뜯는 싸움이었습니다. 틸의 회고도 비슷합니다. 카프는 미친 좌파였고 자신은 미친 우파였다고, 그런데도 두 사람은 어떻게든 서로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체스판은 그 싸움의 작은 무대였습니다. 체스는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상대의 수를 읽고, 함정을 놓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게임입니다. 두 사람이 밤마다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체스를 두면서 사상을 두었고, 사상을 두면서 체스를 두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 하나를 옮기면, 다른 사람이 그 수의 약점을 짚었습니다. 한 사람이 논리 하나를 펴면, 다른 사람이 그 논리의 빈틈을 찔렀습니다. 게임과 논쟁이 한 몸이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새벽이 올 때까지 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보다 멀 수 없는 두 사람이, 왜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못했을까요. 답은 그 격렬함 자체에 있었을 것입니다. 출세에만 눈먼 다른 동기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상대의 신념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비순응주의자 둘이, 순응의 바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크스의 언어로, 다른 사람은 시장의 언어로 같은 것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떼지어 몰려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카프는 그것을 자본주의의 소외라 불렀고, 킬은 그것을 군중의 모방이라 불렀습니다. 미워하는 대상은 같았는데, 그 미움을 설명하는 철학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싸울수록 가까워졌습니다.

그 싸움은 두 사람의 결론을 하나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카프는 끝까지 좌파였고 킬은 끝까지 우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둘의 논리를 칼처럼 버렸습니다. 상대가 던지는 반박을 견디려면 자기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어설픈 구호를 버리고 진짜 사유에 도달했습니다. 적이 나를 키운다는 말이 이보다 잘 들어맞는 경우도 드뭅니다.

훗날 카프가 남긴 말이 이 시절의 핵심을 짚습니다. 지적인 적수를 마지못해서라도 존경할 줄 아는 것이 엄청난 이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화를 내거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도덕적 독선에 빠지지 않고, 상대의 주장을 똑바로 마주 보며 싸우는 법. 카프는 그것을 이 기숙사 방에서 배웠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와 의견이 다른 상대를 미워하거나 무시합니다. 틀린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귀를 닫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프가 익힌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나를 날카롭게 반박하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키운다는 것. 킬은 카프의 좌파 논리에 사정없이 구멍을 냈고, 카프는 그 구멍을 메우려고 자기 생각을 더 단단하게 버렸습니다. 둘은 서로의 슯돌이였습니다. 미워하면서 깎이고, 깎이면서 날카로워졌습니다. 적이면서 스승이었던 셈입니다.

적과 싸우면서 적을 존경하는 법. 이 역설의 기술은 훗날 그가 정치적으로 정반대인 사람들과 한 회사를 세우고, 자신과 어긋나는 권력자들과 거래하며 살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좌파 철학자 CEO와 우파 자본가 회장이라는 기묘한 조합으로 굴러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기숙사 방의 체스판이었습니다. 정치색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한 회사를 삼십 년 가까이 함께 끌고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들이 서로 동의해서 묶인 사이가 아니었다는 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동의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 첫 연습 상대가 피터 킬이었습니다. 삼십 년 넘게 이어질 기이한 우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92년, 카프는 스탠퍼드 로스쿨을 마쳤습니다. 법학박사 학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토록 혐오하던 삼 년의 형기가 끝난 것입니다.

학위를 받았다고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려면 따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카프는 그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니다. 훗날 한 인터뷰에서, 로스쿨을 삼 년이나 다녔는데 변호사 시험은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전혀 없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변호사였던 적이 없으며, 그 사실이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자부심처럼 들립니다. 삼 년을 들여 받은 학위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선택이었으니까요. 변호사 시험 한 번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법학박사라는 간판에, 변호사 자격증 한 장만 더하면 어느 로펌이든 그를 데려갔을 것입니다. 평생의 안정이 시험 한 번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한 번도.

이 거부의 무게를 가늠해 봅니니다. 보통 사람은 삼 년을 투자했으니 본전은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것이 아까워,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을 끝까지 가는 심리입니다. 카프는 그 심리를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니다. 삼 년이 아까워서 변호사가 되니, 삼 년을 통째로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카프에게 로스쿨 졸업장은 변호사로 가는 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끄찍했던 삼 년이 끝났다는 해방의 신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로스쿨에서 배웠습니니다.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법조계라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안전한 길을 그는 통째로 걷어찼습니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의 마음은 다시 철학으로 돌아갔습니니다. 사회 이론가가 되겠다는 처음의 꿈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니다. 로스쿨이라는 우회로를 삼 년이나 돌아왔지만, 결국 그를 부른 것은 해버퍼드에서 익힌 그 모국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학계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그가 보기에

또 한 번의 삼 년짜리 주입식 암기였습니다. 석사부터 다시 시작해 남들이 이미 정리해 놓은 지식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시간. 스탠퍼드에서 이미 삼 년을 갇혀 살았다고 여긴 그에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거부한 것은 미국 학계의 한 풍토였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차례로 밟고, 지도교수의 비위를 맞추고, 학계가 인정하는 좁은 길 안에서만 사유하는 방식. 로스쿨의 사다리와 닳은 또 하나의 사다리였습니다. 카프는 사다리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학위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유였습니다.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물음을 마음껏 파고들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미국에는 없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견딜 수 있는 형태로는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대서양 건너편을 향했습니다. 독일입니다.

카프는 전후 독일의 사상에 깊이 끌려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헤겔도 하이데거도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사유를 찾아, 그는 대서양을 건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류 로펌의 자리를 마다하고 독일로 철학을 공부하러 떠나겠다는 결정. 주변 사람들 거의 모두가 그것을 미친 짓으로 봤습니다. 멀쩡한 스탠퍼드 법학박사가 안정된 미래를 차버리고, 돈도 안 되는 독일 철학을 향해 바다를 건넌다니. 동기들의 눈에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을 지지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피터 틸이었습니다.

철저한 자본주의자였던 그가, 돈과 거리가 먼 길을 고른 친구를 응원했습니다. 지루한 대형 로펌에서 시드는 것보다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밟는 편이 카프에게 훨씬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틸은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는 눈에서는 통했습니다. 틸은 카프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믿는 일이라면 바다를 건너서라도 좇는 사람이라는 것을. 카프가 야생동물처럼 싸우던 그 적수가, 정작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유일한 지지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스탠퍼드 로스쿨은 카프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무엇을 죽어도 할 수 없는 인간인지를 똑똑히 가르쳤습니다. 출세를 향한 줄서기, 믿지 않는 일을 위한 노동, 모두가 가는 길에 대한 순응. 카프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자신을 그곳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동지를 만났습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을 견주면, 그가 얻은 쪽이 훨씬 컸습니다.

이 장의 청년은 아직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1992년의 알렉스 카프는 감시 기술을 파는 회사의 CEO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소외된 노동을 외치며 자본주의자 친구와 야생동물처럼 싸우던 좌파 철학도였습니다. 그가 훗날 세울 회사가 정부의 정보기관에 데이터 분석 도구를 납품하리라는 것을, 이 시절의 그가 들었다면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파시즘이 오면 제일 먼저 총살당할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청년이, 그 파시즘이 손에 쥐면 무서워질 도구를 만들게 되는 길은, 아직 한참 멀리 있습니다. 이 책이 끝까지 붙들 모순의 씨앗은, 그러나 이미 이 기숙사 방에 심겨 있었습니다. 떼지어 몰려가는 세상을 미워하던 사람이, 떼지어 몰려가는 군대를 위한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그리고 그 거리를 그가 어떻게 건너가는지가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배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판 이론의 본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도시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권력에 길드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는가를 평생 캐물어 온 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좌파 철학도에게 그보다 어울리는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누구를 스승으로 만나고, 그 만남이 어떻게 어긋나며, 한 좌파 철학도가 어떻게 런던의 자산운용가를 거쳐 실리콘밸리의 CEO로 변신하게 되는지는, 다음 장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스탠퍼드 로스쿨이라는 삼 년의 형기는, 카프에게서 변호사의 미래를 빼앗는 대신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죽어도 할 수 없는 인간인지에 대한 또렷한 자각. 그리고 평생을 함께 싸우고 함께 갈 한 사람의 친구.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컸던 형기였습니다.

제2장: 변호사를 거부한 법학박사

명성과 돈을 좇는 획일화된 사다리를 걷어차고,
정반대 신념을 가진 적수와 논쟁하며 사유를 버렸습니다.



1992년 스탠퍼드 로스쿨 법무박사 학위 취득.
대형 로펌 취업을 버리고 변호사 시험 응시 전면 거부.

기숙사에서 피터 틸과 체스를 두며 자본주의의 소외와
군중의 모방 욕망을 부딪치는 밤샘 격론 진행.

정치색이 정반대인 적수를 존중하며 논리의
빈틈을 메우는 훈련은 30년 동업의 기반으로 작용.

© NotebookLM

제3장 프랑크푸르트의 사회 이론가

1992년,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 학위를 받은 청년 하나가 졸업 가운을 벗고 변호사 시험 준비실 대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행선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미국 법조계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초봉, 정장, 명함, 정해진 사다리. 그는 그 모든 것을 등졌습니다. 훗날 카프는 그 결정을 차갑게 요약했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쥔 사람이 변호사가 되기를 거부하고, 비행기 표 한 장으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왜 하필 프랑크푸르트였을까요. 답은 한 무리의 사상가들에게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이 도시에는 비판 이론(Kritische Theorie)으로 불리는 학풍이 자라났습니다. 자본주의와 대중문화, 권위주의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는지를 파고든 학자들의 모임, 프랑크푸르트 학파(Frankfurt School)입니다. 테오도르 아도르노, 막스 호르크하이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같은 이름이 그 계보에 있었습니다.

이 학파에는 한 가지 뼈아픈 내력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나치가 권력을 잡자 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던 탓에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파시즘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를 평생의 화두로 삼은 학자들이, 바로 그 파시즘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망명지에서 권위주의적 인간형을 연구했고, 전쟁이 끝난 뒤 일부가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 혼혈로 태어나 "파시즘이 오면 제일 먼저 총살당할 사람은 나"라고 믿으며 자란 청년이, 바로 그 파시즘을 평생 파헤친 망명자들의 본거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끌림이었습니다.

그 전통의 생존자이자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꼽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입니다. 하버마스는 스승 세대의 비관을 물려받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힘이나 거짓이 아니라 더 나은 논거에 설득되어 합의에 이르는 대화, 곧 강제 없는 토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보았습니다. 카프는 그 이름을 보고 독일로 갔습니다.

로스쿨을 마친 사람이 변호사가 되지 않는 일은 드뭅니다. 더 드문 것은 그 자리에서 철학으로, 그것도 바다 건너 독일어로 갈아타는 일입니다. 카프의 이력서를 멀리서 보면 길이 매끄러워 보입니다. 1989년 해버퍼드 학사, 1992년 스탠퍼드 법무박사, 그리고 독일행.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 사이마다 단절이 있습니다. 법조계라는 잘 닦인 고속도로를 눈앞에 두고 핸들을 꺾어 비포장길로 들어선 사람의 선택입니다. 안정된 길이

그를 끌어당길수록, 그는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카프가 미국 철학에 품은 불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영미권의 철학은 언어를 잘게 쪼개 분석하거나, 데카르트가 남긴 오래된 숙제, 곧 보는 나(주체)와 보이는 세계(객체)가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문제에 갇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좁은 방을 답답해했습니다. 대신 칸트에서 헤겔로, 마르크스로, 그리고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과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로 이어지는 독일 사유의 큰 강줄기에 끌렸습니다. 인간을 한 덩어리로, 몸과 마음과 사회를 한꺼번에 사유하려는 철학적 인류학에 매료되었습니다. 작은 퍼즐을 푸는 철학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묻는 철학. 그것이 그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카프는 하버마스의 콜로키움(Kolloquium, 소수가 모여 토론하는 대학원 세미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독일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헤겔과 칸트를 읽고, 그 언어로 자기 생각을 펴고, 다시 그 언어로 거장들의 반박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카프는 그 시간을 견디며 독일어와 논문을 함께 갈고닦았습니다.

콜로키움은 살아 있는 사상의 격투장이었습니다. 카프는 하버마스와 카를 오토 아펠(Karl-Otto Apel)이 맞붙는 논쟁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이면서 평생의 논적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도덕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두고, 두 노철학자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부딪쳤습니다. 또 다른 거장 니클라스 루만과도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루만은 하버마스와는 정반대 방향에서 사회를 사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이름 없는 유학생이, 20세기 사회 이론을 떠받치던 사람들과 같은 탁자에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카프는 그곳에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이 거인들과 같은 방에 앉아 학문적 논쟁을 끝까지 따라갈 머리는 충분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진짜 일원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며 자란 사람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성들 틈에서 자기 자리를 가늠해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인 결의 시간은 환멸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카프는 학계 내부의 논쟁이 바깥세상에 미치는 무게가 너무 가볍다는 데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 학기를 통째로 쏟아붓는 격론이, 강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각주 하나를 두고 몇 달을 다투지만, 그 각주가 거리의 어느 한 사람의 삶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이 그를 갇아먹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학자들의 성격이 함께 일하기에 무척

까다롭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비범했지만,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어 세우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카프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에게는 '빌더(builder)'의 기질이 없었습니다. 텍스트를 읽고 또 다른 텍스트로 응수하는 일에는 능했으나, 그 생각으로 현실의 무엇 하나를 세워 올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세계를 분해할 줄은 알아도, 손으로 세계를 조립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간극이 훗날 카프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관계의 끝은 한 통의 편지로 왔습니다. 2000년 8월, 하버마스는 카프에게 타자기로 친 세장짜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지도교수를 맡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하버마스는 카프가 다루는 주제를 두고 이미 쟁쟁한 문학 비평가와 이론가들이 글을 써온 터라, 카프가 그들과 겨루기 어려우리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거장이 제자에게 보낸 결별의 통보였습니다. 카프는 훗날 이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절당한 기억은 쓰라렸지만, 그는 그 쓰라림을 자기 서사의 한 장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편지의 정확한 문구와 거절 사유에 관한 세부는 카프 본인의 회고와 언론 보도에 의존한 것으로, 1차 문서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료마다 엇갈리던 한 가지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글이 카프를 "하버마스의 제자"라고 적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카프가 하버마스의 콜로키움에서 수년을 보내며 그 영향 아래 공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사 논문을 끝까지 이끌어 학위를 받게 한 실제 지도교수는 하버마스가 아니었습니다. 카롤라 브레데(Karola Brede)였습니다. 하버마스가 손을 뗀 뒤, 사회심리학자였던 브레데가 카프의 논문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영감은 하버마스에게서, 지도는 브레데에게서 받았습니다. 카프 자신도 괴테 대학의 한 부서가 아니라, 하버마스가 속한 사회연구소(Institut für Sozialforschung)와는 다른 사회과학 부문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브레데는 하버마스와 결이 다른 학자였습니다. 하버마스가 거대한 담론과 이성, 의사소통의 보편 구조를 다뤘다면, 브레데는 사회학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끌어들이며 구체적인 마음의 작동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괴테 대학 사회학과와 지크문트 프로이트 연구소(Sigmund Freud Institute) 양쪽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발은 사회를 보는 학문에, 다른 한 발은 마음을 보는 학문에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합이 카프에게 잘 맞았습니다.

추상의 하늘만 떠다니던 청년에게, 브레데는 발을 디딜 단단한 땅을 해주었습니다. 하버마스 곁에서 카프는 인류의 보편적 이성을 논했습니다. 브레데 곁에서 그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끓는 충동을 다뤘습니다. 너무 커서 손에 잡히지 않던 질문이, 한 사람의 욕망과 한 시대의 언어라는 구체적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거대 이론 대신 하나의 구체적 현상을 끝까지 파고들어 한 편의 논문으로 완성하도록 이끈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빌더가 되고 싶어 하던 청년에게, 브레데는 적어도 논문 한 편이라도 끝까지 지어 올리는 법을 가르친 셈입니다.

브레데가 관찰한 카프의 모습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카프에게 굳이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로 논문을 써도 좋다고 권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큰 배려였습니다. 카프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다루려는 사유의 결을 정확히 담으려면 반드시 독일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국어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그는 더 어려운 외국어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정확함을 위해서라면 편함을 버리는 사람. 이 고집은 그가 평생 보여줄 성향의 작은 예고편이었습니다.

브레데는 카프의 또 다른 면모도 기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첩하고 끊임없이 입장을 바꿔가며 논쟁하던 청년의 얼굴입니다. 젊은 카프는 독일의 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FDP)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프랑크푸르트 거리에 기독교민주연합(CDU) 소속의 미셸 프리드만(Michel Friedman)이 살고 있었습니다. 카프는 그를 붙들고 당을 잘못 골랐다고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정치인을 상대로 정당을 갈아타라고 따지는 유학생.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한 장면이 말해줍니다. 한 정파에 못 박히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논쟁 자체를 즐기던 그 유연함은, 훗날 진보주의자에서 안보 현실주의자로 건너가는 그의 긴 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초기 영감과 브레데의 실질적 지도 아래, 카프는 2002년 마침내 괴테 대학에서 신고전파 사회 이론(neoclassical social theory)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Goethe University Frankfurt)입니다. 학사를 1989년에 해버퍼드에서, 법무박사를 1992년에 스탠퍼드에서, 그리고 철학 박사를 2002년에 괴테에서. 세 학위가 십삼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변호사가 될 뻔한 청년이 사회 이론가가 되기까지, 꼭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길고 까다롭습니다. 『생활세계에서의 공격성: 은어, 공격성, 문화의 연관성 묘사를 통한 파슨스 공격성 개념의 확장(Aggression in der Lebenswelt: Die Erweiterung des Parsonsschen Konzepts der Aggression durch die Beschreibung des Zusammenhangs von Jargon, Aggression und Kultur)』입니다. 제목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잡히지 않습니다.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세계라는 말부터 봅시다. 생활세계(Lebenswelt)는 우리가 매일 숨 쉬듯 살아가는 일상의 무대를 가리키는 독일어 철학 용어입니다. 출근길의 인사, 식탁의 잡담, 회의실의 농담, 술자리의 험담. 이론으로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그냥 살아내는 그 평범한 세계가 생활세계입니다. 카프가 던진 질문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인간 안에 숨은 공격성이,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의 무대 위에서 어떻게 슬그머니 허용되고 정당해지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무엇인가. 그의 답은 언어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은어(Jargon)였습니다.

논문의 출발점에는 미국 사회학자 탈컷 파슨스(Talcott Parsons)가 있습니다. 파슨스는 사회가 어떻게 하나로 묶여 굴러가는지를 설명한 거대한 이론가였습니다. 그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갓난아이는 본능과 충동 덩어리로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규칙을 익히고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날것의 충동이 사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동기로 다듬어집니다. 공격성마저도 그 과정에서 길들여져 질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회화라는 매끄러운 컨베이어 벨트가, 거친 인간을 말끔한 시민으로 가공해 낸다는 그림입니다.

카프는 이 그림이 너무 깨끗하다고 보았습니다. 파슨스의 모델은 사회가 어떻게 통합되는가는 잘 설명했지만, 프로이트가 말한 파괴적 충동의 진짜 강도를 지나치게 순하게 깎아냈다는 것이 카프의 비판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회의 규칙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금기의 욕망, 입 밖에 낼 수 없는 어두운 충동이 끓고 있습니다. 파슨스의 컨베이어 벨트는 그 끓는 것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카프는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금기시된 욕망 사이의 충돌과 긴장을 이론 안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는 그저 고분고분 순응하는 개인들을 더한 합으로 쪼그라들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착하게 그리면, 사람의 위험을 놓친다는 경고였습니다.

파슨스가 남긴 빈자리를 메우려고 카프가 끌어온 사람이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였습니다. 정확히는 아도르노의 책 『진정성의 은어(The Jargon of

Authenticity)』였습니다. 아도르노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연결과 소외를 메우려고 특정한 은어에 매달린다고 보았습니다. 카프는 이 생각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논리도 닿지 않고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토록 열광적으로 퍼지는가.

카프의 답은 날카롭습니다. 은어는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줍니다. 하나는 소속의 환상입니다. 같은 은어를 쓰는 순간, 나는 '우리 편'이 되고 진짜배기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면죄부입니다. 은어는 바깥사람과 이방인을 밀어내고 공격하려는 어두운 욕망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포장해 줍니다. 같은 말로 안을 묶고 밖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어를 입에 올림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겉으로는 어기지 않으면서, 속에 눌러둔 공격성을 합법적으로 풀어냅니다. 욕설 한마디 없이, 멱살 한 번 잡지 않고, 점잖은 단어들만으로 타인을 베는 방법. 그것이 은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카프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만합니다. 어린 시절의 그를 떠올려 봅시다. 유대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느 집단에도 온전히 끼지 못한 아이. "우리는 서로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어떤 무리도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박사 논문에서 파고든 주제가, 하필 '우리 편'을 묶고 '저쪽'을 미는 언어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안과 밖을 가르는 말의 폭력을 평생 바깥에서 맞아온 사람이, 그 폭력의 설계도를 학문으로 그려낸 셈입니다. 자기가 베인 칼을 거꾸로 들어 그 날을 살핀 것입니다. (이 연결은 카프 본인이 명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유년기 발언과 논문 주제를 잇대어 본 해석입니다.)

여기에 카프는 한 겹을 더 얹었습니다. 헬무트 플레스너(Helmuth Plessner)의 『지연된 국가(The Belated Nation)』입니다. 플레스너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독일이었는가. 같은 유럽의 한복판에서, 왜 독일이 파시즘으로 미끄러졌는가.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독일은 민주주의 제도가 뒤늦게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일찍 시민의 정치를 키워낸 동안, 독일은 그 학교를 늦게 다녔습니다. 거기에 마르틴 루터의 신학에서 흘러나온 '세속적 경건함'과 깊은 '내면성'이 더해졌습니다. 바깥의 정치보다 안쪽의 영혼을 더 떠받드는 기질입니다. 광장에서 토론하기보다 마음속으로 침잠하는 쪽을 고결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플레스너는 바로 이 토양이 권위주의와 파시즘이 싹틀 사회적 맹점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정치를 천하게 여긴 자리에, 거꾸로 정치적 야만이 비집고 들어왔다는 진단입니다. 카프는 이 진단이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배척적인 총동이 어떻게 지금도 독일의 생활세계 안에서 은밀히 힘을 얻는지, 그는 그 작동을 짚으려 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한 논문 안에서 맞물립니다. 파슨스에게서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길들이는가를 빌리고, 아도르노에게서 언어가 어떻게 어둠을 포장하는가를 빌리고, 플레스너에게서 어떤 땅이 그 어둠을 잘 키우는가를 빌렸습니다. 거기에 프로이트가 말한 총동의 실제 힘을 다시 불어넣었습니다. 흩어진 네 갈래의 이론을 하나의 질문 아래 꿰어 한 화면에 펼쳐 보인 셈입니다. 훗날 그가 만들 회사가 하는 일, 곧 흩어진 정보 조각을 한 화면에 꿰어 보여주는 그 일과, 묘하게 닮은 작업이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논문이 서지 않습니다. 카프는 자신의 틀을 증명할 실제 사건 하나를 논문에 끌어왔습니다. 그가 학위를 쓰던 시절 독일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추상의 이론을 살아 있는 현장 위에 내려놓는 솜씨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1998년 10월, 프랑크푸르트의 파울스교회(Paulskirche)에서 작가 마르틴 발저(Martin Walser)가 독일 서적상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파울스교회는 빈 건물이 아닙니다. 1848년 독일 최초의 국민의회가 열린 곳, 독일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소에서, 한 작가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채 그 반대의 총동을 풀어놓은 셈입니다. 수상 연설에서 발저는 홀로코스트를 끝없이 들먹이고 반성을 요구하는 지식인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그 끝없는 추궁을 '잔혹한 기억의 의식'이라 불렀고, 자신은 더 이상 그런 도덕의 총구 앞에 서서 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객석에는 당시 독일 유대인 중앙위원회 의장이던 이그나츠 부비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카프의 분석은 차갑고 정밀합니다. 그는 발저의 주장이 역사 앞에서 명백히 틀린 억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일으킨 효과는 어마어마했다고 짚었습니다. 발저는 '우리 민족(das Volk)'이라는 단어를 자기 것으로 끌어와 자신과 청중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 깊이 품었으나 금기 때문에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것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피로와, 끝없이 죄인 취급당하는 데서 온 분노였습니다. 발저의 언어는 전형적인 진정성의 은어로 작동했습니다. 그 언어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슬그머니 뒤바뀌었습니다. 반성을 요구하던 지식인과 유대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했습니다. 청중은 발저의 은어를 통해 눌러두었던 공격성을 풀어내고 심리적 안도를 얻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그대로 쓴 채, 타인을 향한 적대를 정당화하는 언어. 카프는 그것을 자기 이론의 완벽한 실례로 삼았습니다. 한 편의 박사 논문이 한 시대의

뜨거운 논쟁 한가운데에 손을 집어넣은 셈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카프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지크문트 프로이트 연구소(Sigmund Freud Institute)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정신분석의 본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곳의 밤은 강의실과 달랐습니다. 카프는 정신분석가들과 둘러앉아 시가를 피우며 '의식적인 무의식(conscious subconscious)'을 두고 밤새 토론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도 모른 채 알고 있는 것,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분석가들은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끝없이 풀어놓았습니다. 카프는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안쪽, 기만과 욕망과 진짜 동기에 관한 자료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훗날 카프는 이 시절을 두고 놀라운 평가를 남겼습니다. 프로이트 연구소에서 인간의 기만과 욕망과 동기를 들여다본 경험이, 평생을 통틀어 사업을 위해 받은 단 하나의 값진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이론도 아니고 법학도 아니었습니다. 정신분석가들의 담배 연기 자욱한 토론방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면서 아닌 척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속이려는지를 읽어내는 눈. 그것이 훗날 팔란티어라는 회사에서, 다루기 까다롭기로 소문난 천재 엔지니어들을 움직이고 묶어두는 카프식 경영의 밑천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해부하던 학생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을 무렵, 카프는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독일로 건너간 뒤 2001년까지, 그는 그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이방인이던 그에게 독일의 문화 전통이 뜻밖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흘뿌리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때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똑바로 말하는 문화. 빈말과 겉치레가 적은 그 직설을 카프는 편안해했습니다.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머물 곳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한때 그는 독일에 영영 눌러앉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독일의 직설은 카프의 천성과 잘 맞았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자란 사람에게는, 겉으로 친한 척하는 미국식 사교보다 차라리 솔직한 거리감이 편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곳에서는, 적어도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아닌지를 헛갈릴 일이 없었습니다. 평생 소속을 의심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명료함은 안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가난이 낳은 일화 하나가 그의 프랑크푸르트 시절을 압축해 보여줍니다. 어느 날 카프는 동료들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미국 샴푸가 너무 독해서 자기 머리가 이렇게 곱슬거리고 망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샴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한밑천 잡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허튼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카프의 험클어진 머리와 기인 같은 행동이 워낙 그럴듯했던 탓에, 대학의 적잖은 지식인들이 그 터무니없는 말을 진담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었는지, 이 한 토막이 말해줍니다.

하버마스의 거절 편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보통의 유학생이라면 그 편지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손을 떼겠다고 통보한 순간, 박사 과정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카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믿어온 사람에게, 거장의 거절은 익숙한 경험의 한 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받아주지 않는 집단이 하나 더 늘었을 뿐. 그는 브레데에게 옮겨 가 논문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거절당한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길을 내는 그 버릇은, 표준의 길이 막힐 때마다 자기만의 길을 발명해온 난독증 소년의 그것과 같은 줄기였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이념 논쟁에 몰두하던 좌파 성향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십 년 가까운 독일 체류를 마치고 나온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광기와 파괴성을 가까이서 들여다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언어의 속임수로 자기 안의 폭력을 정당화하는지, 점잖은 단어들 뒤에 어떤 야만이 숨는지를 학문으로 파헤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응시의 끝에서 그는 한 가지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인간의 선이나 부드러운 말만으로는 야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인과를 카프 본인이 명시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며, 그의 학문적 이력과 훗날의 발언을 잇대어 본 해석입니다.)

언어와 공격성과 문화가 어떻게 얽혀 한 사회의 모양을 빚는가. 카프가 박사 시절 던졌던 이 질문은 강의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가 기술과 민주주의, 그리고 서방 세계의 생존을 사유할 때 발밑에 깔린 단단한 지반이 되었습니다.

그 지반의 윤곽은 그가 2025년에 펴낸 책 『기술 공화국(The Technological Republic)』에서 한참 뒤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서 카프는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의 말을 빌려 차가운 명제 하나를 던집니다. 서구 문명이 떠오른 것은 그들의 사상이나 종교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조직화된 폭력을 휘두르는 능력'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발저의 연설에서 점잖은 단어 뒤에 숨은 폭력을 읽어낸 학생이, 수십 년 뒤에는 폭력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묻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폭력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폭력을 무엇으로 막을지를 다르게 묻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야만이 멈추지 않는다고 믿게 된 사람의 결론은, 압도적인 힘으로 야만을 억눌러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박해의 1순위가 될까 두려워하며 자란 사람이, 그 두려움의 끝에서 누구보다 단단한 방패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론이 옳았는지는 이 책이 끝까지 따라가야 할 물음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공격성을 해부하던 그 청년이 무엇을 만들게 되는지는, 한 통의 전화가 그에게 걸려 오는 다음 장에서 모양을 갖추니다.

제3장: 프랑크푸르트의 사회 이론가

인간의 파괴적 욕망이 점잖은 은어 뒤에 숨어 배척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심리 구조를 학문으로 증명했습니다.

언어적 합리화



억눌린 파괴적 충동

지크문트 프로이트 연구소에서
정신분석가들과 교류.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고 어두운 충동을
합리화하는 기만의 메커니즘 관찰.



진정성의 은어

카를라 브레데의 지도 아래 2002년
괴테 대학에서 신고전파 사회 이론
철학 박사 학위 취득.



정당화된 배척과 폭력

학계 지식인들이 세상을 텍스트로
분해할 뿐 현실을 짓는 빌더가
아니라는 한계를 깨닫고 추상을
넘어선 실천을 갈망.

© NotebookLM

제4장 철학자에서 억만장자 CEO로

전화가 울렸을 때, 알렉스 카프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2003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스탠퍼드 로스쿨 시절 같은 기숙사 복도를 쓰던 옛 동기, 피터 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정치와 철학을 두고 다투던 사이였습니다. 좌파 성향의 카프와 자유지상주의자 툴.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그 다툼이 즐거워 새벽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던 사이였습니다. 둘은 거의 모든 것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도, 국가를 보는 눈도, 인간의 본성을 보는 눈도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둘은 서로를 견뎠습니다. 아니, 견딘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머리를 슷돌 삼아 자기 생각을 갈았습니다.

툴은 새 소프트웨어 회사를 함께 만들자고 했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되고, 최고경영자 자리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카프는 코드를 한 줄도 쓸 줄 몰랐습니다. 컴퓨터공학을 배운 적이 없었고, 정식으로 경영 수업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독일 괴테 대학에서 받은 사회 이론 박사 학위, 그리고 런던에서 남의 돈을 굴리며 익힌 감각뿐이었습니다. 최첨단 군사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장 자리에 앉을 이력이 아니었습니다. 사장은커녕, 면접에서 첫 질문에 막힐 이력이었습니다.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카프는 그 자리에서 "예"라고 했습니다. 급여가 얼마인지, 지분은 얼마나 받는지, 회사가 무엇을 만들 것인지조차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상에서 곧바로 수락했습니다.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뛰어든 이 장면은 이후 카프가 여러 인터뷰에서 즐겨 꺼내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이든, 사실에 극적인 색을 입힌 것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날의 통화로 철학자의 길을 걷던 한 남자의 인생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을 알려면 1990년대 초의 스탠퍼드로 잠시 돌아가야 합니다. 카프와 툴은 로스쿨 동기였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지내며 정치와 철학으로 부딪혔습니다. 카프는 좌파였고, 툴은 그때 이미 자유지상주의의 색이 짙었습니다. 보통 그런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합니다. 두 사람은 반대였습니다. 자기와 제일 다른 머리를 가진 상대와 부딪히는 데서 둘 다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의 논쟁이 십수 년 뒤 한 회사의 토대가 됩니다. CEO와 회장이 정치적으로 정반대인 회사. 그 기묘한 조합의 뿌리가 로스쿨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기까지, 카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2002년, 카프는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도교수는 카롤라 브레데였고, 그 위로는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거대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버마스의 콜로키움에 드나들고, 니클라스 루만과 카를 오토 아펠 같은 학자들과 어울렸습니다. 그가 다룬 사회 이론은 전 세계에서 서른 명, 많아야 마흔 명이나 제대로 이해할까 싶은 영역이었습니다.

그 정점에서 카프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배운 축에 들면서, 동시에 제일 돈을 못 버는 축에 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극단이 한 사람 안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더 깊은 환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학계의 논쟁은 그 안의 사람들에게만 흥미로울 뿐, 바깥 세상에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돈이 너무 작았습니다. 논문 한 편을 두고 몇 해를 다투어도, 그 다툼이 바깥의 단 한 사람의 삶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철학자들을 곁에서 지켜본 카프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손이 없다는 것도 알아했습니다. 말은 날카로웠지만 짓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해석했고, 짓지는 않았습니다.

훗날 카프는 비즈니스가 학계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거친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학계는 아무 영향도 못 미치면서 세상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화만 내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비즈니스는 당신이 만든 제품으로 그게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품이 곧 증명입니다. 팔리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상한 주장입니다. 진리를 다루는 학문보다, 돈을 다루는 장사가 진리에 더 가깝다니. 그러나 카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철학 세미나에서는 누구도 자기 말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은 말로 받아칠 수 있고, 논쟁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시장은 다릅니다. 시장에서는 고객이 지갑을 열지 안 열지로 답합니다. 틀린 제품은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으면 회사는 죽습니다. 검증이 가차 없습니다. 카프는 그 가차 없음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평생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의 권위가 아니라 결과로 판가름 나는 세계는 차라리 공정하게 보였습니다.

학계를 떠난 카프의 손에 쥐어진 밑천은 친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만 2천 달러였습니다. 카프 본인의 말입니다. 그는 이 돈으로 주식과 스타트업에 손을 댔고, 의외로 돈 버는 데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성공을 발판 삼아 런던에 자산 운용사를 차렸다고 그는 말합니다. 회사 이름은 캐드먼 그룹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운데 이름

알렉산더 캐드먼 카프에서 따온 것입니다. 캐드먼은 6세기 잉글랜드 휘트비 수도원의 소치기였다가 최초의 영시를 남겼다고 전해지는 수도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카프의 자기 서사와 검증된 기록 사이의 틈을 정직하게 벌려놓아야 합니다. 카프는 당시 자신의 목표가 소박했다고 회고합니다. 25만 달러쯤, 잘되면 100만 달러쯤 모아서 베를린으로 돌아가, 아마추어 평론가처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햄버거를 먹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듯하면서도 극적인 자기 묘사입니다.

다만 1만 2천 달러라는 적은 종잣돈으로 어떻게 유럽의 고액 자산가들을 끌어들이는 런던 자산 운용사를 단숨에 세웠는지는,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기록도 깔끔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1만 2천 달러는 자산 운용사를 차리기에는 턱없이 작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곧장 큰손들의 자금을 굴렸다는 이야기에는 빠진 단계가 있습니다. 영국 기업 등록 정보를 추적한 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캐드먼 그룹의 공식 법인 설립 시점은 2005년으로 나타납니다. 틸이 카프에게 팔란티어 공동 창업을 제안한 2003년에서 2004년보다 오히려 늦거나 겹칩니다. 이 등록 연도와 조사 내용은 비공식 추적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사는 캐드먼 그룹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 가운데 일부가 지금 팔란티어의 핵심 직책에 있다고도 짚습니다. 사실이라면 캐드먼은 독립된 거대 운용사라기보다, 카프의 초기 투자와 인맥이 팔란티어로 흘러드는 통로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추적 기록에 기댄 해석이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 만합니다. 카프가 들려주는 캐드먼 이야기는 본인의 입을 거친 자기 서사이고, 그 화려한 성공담이 곧 검증된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프는 자기 이력을 극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을 감안하고 들어야 합니다.

런던에서 돈을 굴리던 이 시기, 카프는 틸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틸은 2002년페이팔을 이베이에 팔아 막대한 돈을 손에 쥐었고, 그 돈으로 클라리움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 겸 벤처캐피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카프는 유럽에서 쌓은 금융 인맥으로 틸을 도와 클라리움의 투자 자금을 모으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로스쿨 기숙사에서 정치와 철학으로 부딪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돈을 사이에 두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한쪽은 자금을 굴리고, 한쪽은 그 자금을 댈 유럽의 큰손들을 데려왔습니다. 둘의 정치 성향은 정반대였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대화를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카프는 좌파였고 틸은 자유지상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는 그 간극이 흠이 아니라 장점이었습니다.

서로의 맹점을 서로가 메웠기 때문입니다.

카프가 런던에서 익힌 것은 재무제표를 읽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자신의 진짜 재능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었습니다.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돈을 버는 데는 소질이 있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는 데는 서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학구적이고, 돈은 잘 벌지만 제값을 못 받는 별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사업을 짜는 법을 알려주고, 더 빨리 벌고 공정하게 받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비상하지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괴짜 천재들. 그들의 재능을 현실의 돈으로 바꿔주고, 동시에 그들을 한자리에 붙잡아두는 능력. 카프가 가진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킬은 바로 이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킬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구상이 있었습니다.페이팔에서 사이버 사기를 잡아내던 방식을, 이번에는 테러범을 추적하는 데 써보자는 것이었습니다.페이팔 시절, 킬과 그의 동료들은 가짜 계정과 도난 카드로 돈을 빼가는 사기꾼들과 끝없이 싸웠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잡아낼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상한 거래의 패턴을 기계가 골라내게 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함께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킬은 그 발상을 다른 전장으로 옮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9·11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2001년 9월의 그 아침 이후,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흩어진 데이터의 산더미 속에서 위협의 신호를 골라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테러는 비대칭의 위협입니다. 건초 더미는 거대하고 바늘은 작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 바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차고 넘쳤지만, 그 데이터는 수십 개의 기관에, 수백 개의 칸에 따로 잠겨 있었습니다. 9·11 이후의 조사에서 드러난 뼈아픈 사실이 그것이었습니다. 단서는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한곳에 모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구상을 현실로 옮길 회사의 사장으로, 킬은 카프를 지목했습니다. 코드를 못 쓰는 철학자를 군사 소프트웨어 회사의 얼굴로 세운다는 발상은 엉뚱해 보입니다. 그러나 킬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워싱턴의 관료들에게 새 소프트웨어를 팔려면, 흔하디흔한 양복 차림의 영업사원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영업 철학은

역설적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팔려면 상대가 당신을 믿을 만큼은 그들과 닮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없는 무언가를 당신이 가졌다고 믿게 할 만큼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비슷하면 그저 또 한 명의 업자입니다. 너무 다르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 사이의 좁은 자리에 정확히 서는 사람이 물건을 팝니다. 런던에서 유럽 엘리트의 돈을 굴리고, 독일어로 쓴 난해한 박사 논문을 가진 카프는, 경직된 관료들에게 자기들이 가늠하지 못하는 미지의 천재성을 각인시키기에 알맞은 인물이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군수업체 임원이 들어오면 관료들은 그 사람의 셈법을 압니다. 무엇을 팔러 왔는지,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 훤히 압니다. 그런데 헝클어진 머리에 운동복 차림으로 헤겔과 하버마스를 입에 올리는 이 사람 앞에서는 셈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늠이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그 가늠 안 됨이 카프의 무기였습니다.

여기서 짚어둘 구분이 있습니다. 카프 개인이 코드를 못 쓴다는 사실과, 이 회사가 왜 세워졌는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카프의 무능은 개인의 한계이고, 팔란티어의 설립 동기는 9·11 이후의 대테러라는 시대의 숙제였습니다. 돌을 한데 뭉쳐 "코딩도 못 하는 사람이 어쩌다 사장이 됐다"는 식으로 읽으면, 이 회사가 무엇을 풀려고 태어났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팔란티어는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운영은 2004년부터였고, 카프는 2004년 공동 창업자이자 CEO로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섯 사람이 창업자였습니다. 피터 틸, 알렉스 카프, 조 론스데일, 스티븐 코헨, 네이션 게팅스. 게팅스는페이팔 출신 엔지니어였고, 론스데일과 코헨은 스탠퍼드에서 온 젊은 인물이었습니다. 코헨은 회사의 초기 제품을 짠 핵심 엔지니어였고, 론스데일은페이팔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틸의 눈에 들었던 인물입니다. 다섯 중 넷은 코드를 알았습니다. 카프 한 사람만 몰랐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코드와 제일 먼 사람이었고, 동시에 회사의 얼굴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짓는 일은 넷이 맡고, 파는 일과 이끄는 일은 카프가 맡는 구도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따왔습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천리안 구슬, 팔란티르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일을 들여다보는 보는 돌입니다. 창업자들은 자기들의 소프트웨어가 세상의 숨은 위협을 꿰뚫어 보는 렌즈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초기에 이 회사를 살린 것은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돈이 안 되거나 골치만 아프다고 본 투자자들이 줄줄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이 CIA였습니다. 정확히는 CIA가 직접 세운 회사가 아니라, CIA의 벤처 투자 부문인 인큐텔이 초기 투자자로 들어왔습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팔란티어는 정보기관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정보기관의 투자 자회사가 일찍 돈을 댄 민간 회사였습니다.

인큐텔이 넣은 돈은 200만 달러 안팎이었습니다. 벤처 투자의 세계에서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의 진짜 가치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팔란티어가 미국 정상급 정보기관들의 실제 데이터를 만지며 자기 소프트웨어를 시험해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돈보다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인큐텔은 FBI와 CIA, 그리고 국방부 안의 기밀 부서까지 세 곳의 시범 프로젝트를 열어줬습니다. 그중 국방부와의 협업이 회사가 발을 붙이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당시 미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급조폭발물(IED)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아내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흙더미 하나, 버려진 차 한 대가 폭탄일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누가 자재를 사들이고, 누가 그 길목을 자주 드나들었는지를 알면 패턴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 따로, 감청 기록 따로, 현지 제보 따로였습니다. 여러 기관에 조각난 데이터를 한데 모으자, 그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드를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코드로 굴러가는 회사를 이끌었을까요.

답은 카프가 철학에서 가져온 한 가지 통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단어를 손에 익혀야 합니다. 온톨로지(ontology)입니다.

철학에서 온톨로지는 존재론을 뜻합니다.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것들은 서로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가를 묻는 학문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팔란티어 안에서 이 말이 하는 일은 눈에 보이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한 부서의 컴퓨터에는 전화번호 목록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차량 번호판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그 옆에는 출입국 기록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각자 자기 칸에 갇힌 채 서로를 모릅니다. 어떤 전화번호의 주인이 어떤 차를 몰고, 어떤 계좌로 돈을 보내며, 언제 국경을 넘었는지는 아무도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조각들이 따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톨로지가 하는 일은 이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화면에 꿰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사람과 묶고, 사람을 차와 묶고, 차를 거래 내역과 묶습니다. 데이터 칸의 숫자들이 현실 세계의 실체와 그 사이의 관계로 다시 짜입니다. 분석관은 이름 하나를 누르면 그 사람을 둘러싼 관계의 그물을 한눈에 펼쳐볼 수 있습니다. 그 그물을 짜는 설계도가 온톨로지입니다.

장면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분석관 앞에 화면이 켜집니다. 가운데 점 하나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점을 누르자 선들이 뻗어 나갑니다. 한 선은 전화번호로, 한 선은 자동차로, 한 선은 그가 자주 송금한 계좌로 이어집니다. 그 계좌의 점을 다시 누르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은 며칠 전 국경을 넘은 기록을 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섯 개의 부서에 따로 잠겨 있던 사실들이, 지금은 한 화면 위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분석관은 마우스 한 손으로 그 관계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온톨로지가 깔린 소프트웨어의 풍경입니다. 데이터를 구조화한다는 말은 머리로 따져야 하지만, 점과 선이 살아 움직이는 이 화면은 그냥 눈에 보입니다.

카프는 철학과 코딩 사이에 놀랄 만큼 얇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설명을 풀면 이렇습니다. 철학은 세속의 잣대로는 쓸데없어 보이지만 따져보면 결정적인, 미세한 구분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 단어와 저 단어가 어떻게 다른가, 이 개념과 저 개념의 경계는 어디인가를 끝없이 가릅니다.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구분들을 다룹니다. 이 데이터와 저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복잡한 개념의 미세한 차이를 견디고 다스리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카프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코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가 어떻게 묶이고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그 과정에서 사람의 권리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소프트웨어의 깊은 골격에 새기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설계의 철학을 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도구를 만드는가, 무엇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자리에 그가 섰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카프가 철학자로서 집요하게 고집한 것이 드러납니다. 시민의 자유를 소프트웨어 안에 기술로 박아 넣는 일이었습니다.

9·11 이후, 테러범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국가가 시민의 데이터를 가리지 않고 긁어모으는 흐름에 카프는 깊이 불안해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또렷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자유를 망가뜨린다면, 그 전쟁은 이겨도 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파시즘이 오면 제일 먼저 벽에 세워질 사람은 자신일 거라고 생각하던 그 소년의 공포가, 여기서 설계 원칙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소프트웨어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는 검색 방식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그물을 던지듯 데이터를 훑는 방식을 버리고, 법적 근거가 있는 정확한 대상만 들여다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차별로 긁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한 표적만 조준하는 것입니다. 이를 서술 기반 검색(predicate-based search)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도시 전체의 통화 기록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그 한 사람의 번호만 조회하는 것입니다. 들여다볼 이유가 먼저 있어야 들여다볼 수 있게 묶어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던지는 그물은 처음부터 칸막이에 걸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록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들여다봤는지, 그 모든 발자국을 지울 수 없는 기록(immutable logs)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직렬화와 역직렬화, 분기와 파이프라인 같은 복잡한 뼈대가 그 기록을 떠받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결과는 단출합니다. 누군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 하면, 그 행위 자체가 시스템에 증거로 남습니다. 의회가, 변호인이 그 기록을 들춰 따질 수 있습니다.

카프는 팔란티어의 제품이 세상에서 인권 탄압에 갖다 쓰기 제일 어려운 소프트웨어라고 자부했습니다. 종이에 적은 윤리 강령은 찢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코드에 박힌 규칙은 찢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강령이 아니라 골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자부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도 같은 무게로 보아야 합니다. 감시 도구를 만든 사람이 그 도구는 함부로 쓸 수 없게 설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구는 도구입니다. 누가 손에 쥐느냐에 따라 그 골격이 얼마나 버텨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울 수 없는 기록도, 그 기록을 들여다볼 의지가 없는 권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카프의 설계가 진심이었다는 것과, 그 설계가 모든 오용을 막아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책은 그 사이의 간격을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경영에서도 카프는 실리콘밸리의 정해진 각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예술가들의 공동체처럼 꾸렸습니다. 관료적 통제와 위계가 머리 좋은 엔지니어의 창의력을 짓누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규범에 잘 못 끼지만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신경다양성을 지닌 사람들과 이단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에 병적으로 몰두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줬습니다. 면접에서 그가 보려 한 것은 학벌이나 경력의 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문제에 미쳐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었습니다. 다루기 힘든 천재들이 모인 공동체. 카프는 회사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난독증을 안고 자란 사람이, 표준에서 벗어난 뇌가 표준이 못 보는 것을 본다고 믿던 그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지은 것입니다. 제1장의 그 아웃사이더가, 이번에는 아웃사이더들을 모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회사는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은 보통 소비자를 향했습니다. 더 빠른 검색, 더 편한 쇼핑, 더 재미있는 앱이 목표였습니다. 팔란티어의 첫 고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기관이었습니다. 만드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쓰는 자리도 전부 어긋나 있었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엔지니어들이 만든 물건을, 정장을 입은 관료들이 사서, 전장의 병사들이 썼습니다. 그 세 세계는 서로를 거의 모릅니다. 카프는 그 셋을 잇는 통역사 노릇을 했습니다.

초창기의 풍경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카프와, 열두 살 소년처럼 보이는 괴짜 엔지니어 무리가 워싱턴의 관료들을 찾아갔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으로도 못 푼 대테러 분석 문제를, 자기들 소프트웨어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관료들은 이 한 무리를 프랑켄슈타인 괴물 보듯 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별종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의심을 끝내 낸 것이 카프였습니다. 양복쟁이 영업사원이 아니라, 독일어로 사회 이론을 쓴 철학자가 풀어내는 설득이었습니다. 그는 기능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데이터는 이미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데이터가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막는 칸막이를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관료들이 평생 들어온 영업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털이 노린 바로 그 역설이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과 닮았으면서, 그들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 카프는 그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여기서 미화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코드를 못 쓰는 철학자가 워싱턴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는 영웅담으로 굴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카프가 판 것은 위협을 꿰뚫어 보는 렌즈였고, 그 렌즈는 사람을 겨눕니다.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 화면에 펼쳐 보이는 힘은, 테러범을 잡는 데도 쓰이고 멀쩡한 시민을 들여다보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카프 자신이 누구보다 그 양면을 알았습니다. 그가 시민의 자유를 코드에 박으려 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그 노력이 진심이었다는 것과, 그 도구가 위험하다는 것은 둘 다 사실입니다. 둘 중 하나를 지우면 카프라는 사람을 놓칩니다.

할아버지의 1만 2천 달러로 시작했다는 한 남자가, 런던의 펀드매니저를 거쳐, 세계에서 손꼽히게 비밀스럽고 강력한 데이터 회사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1만 2천 달러로 시작해, 훗날 한 해 보수로 그 수만 배를 받는 CEO가 되고, 수천억 달러짜리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시작의 액수가 본인의 말 그대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자리는 분명합니다.

2003년의 전화 한 통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코드를 못 쓰는 철학자가 조건도 묻지 않고 "예"라고 답한 그 순간, 학계의 이방인이었던 사람은 감시와 데이터 분석이라는, 21세기에 손꼽히게 무겁고 위험한 사업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파시즘이 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라 스스로를 규정하던 이가, 그 파시즘이 손에 쥐면 누구보다 무서워질 도구를 짓는 일을 떠맡았습니다. 그는 그 도구에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빗장을 걸어두었다고 말합니다. 빗장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누가 문 앞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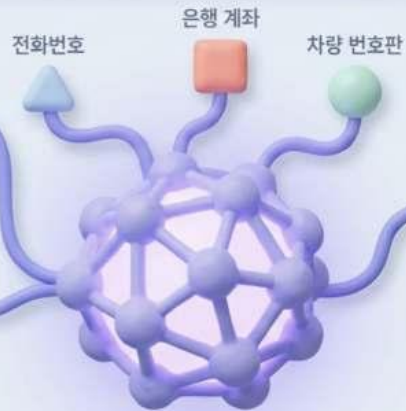
철학을 떠난 사람은 철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의실 대신 코드 안에 자기 생각을 새겼습니다. 책으로는 서른 명을 설득하던 사람이, 소프트웨어로는 한 나라의 정보기관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판돈이 작다며 학계를 떠난 사람에게, 이제 판돈은 사람의 목숨과 시민의 자유였습니다. 그가 바라던 만큼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그에게 있었는지는, 다음 장들이 풀어갈 이야기입니다.

제4장: 코딩 모르는 철학자, 실리콘밸리를 짓다

철학의 존재론(Ontology)을 소프트웨어의 골격으로 이식하여
파편화된 정보를 연결하는 감시망을 설계했습니다.

2003년 런던에서 1만 2천 달러
종자돈으로 금융업 운영.
2004년 피터 틸의 제안으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겸 CEO 합류.

CIA 벤처 부문 인큐텔의
200만 달러 투자 유치.
흩어진 테러 단서를 한 화면에
묶어내는 국방부 협업 시스템 증명.



국가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서술 기반 검색과
지울 수 없는 로그 기록을
소프트웨어 코드 자체에 이식.

© NotebookLM

제5장 자유 민주주의의 방패



정부와 마주 앉은 팔란티어, 다보스 2026

2022년 봄의 어느 날, 키이우의 한 건물 안으로 미국인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공항을 통한 정식 입국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수도 외곽 30킬로미터까지 밀고 들어온 직후였고, 서방의 기업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알렉스 카프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곱슬머리에 험령한 옷차림이었고, 평소처럼 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서방의 주요 기술 기업 최고경영자 가운데 전쟁 중인 키이우를 직접 찾은 첫 인물이 카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거래의 형식은 자선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군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돈을 받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회사가 내건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건넨 소프트웨어가 실제 전장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자선이라는 단어만으로는 그 장면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들어가, 누구를 죽일지를 가려내는 기계를 작동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계가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전장에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머리 위로는 위성이 사진을 찍고, 드론이 영상을 흘려보내고, 지상에서는 레이더가 신호를 잡습니다. 무전이 감청되고, 정찰병의 보고가 올라오고, 적이 쓰던 휴대폰 번호가 노획됩니다. 문제는 이 조각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위성 사진은 한 부서에, 감청 기록은 다른 부서에, 정찰 보고는 또 다른 책상 위에 놓입니다. 누군가 이 조각들을 손으로 맞춰보기 전까지, 그것들은 그냥 데이터 더미일 뿐입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이 흩어진 조각을 한 화면에 꿰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것을 두고 "우주에서 진흙탕까지(from space to mud)" 한 장의 지도 위에 올린다고 표현합니다. 위성이 본 것과 지상 정찰병이 본 것이 같은 화면에서 겹쳐집니다. 적이 쓰던 전화번호가, 며칠 전 공격이 일어난 위치와, 어제 찍힌 차량의 움직임과 연결됩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패턴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떠오릅니다. 누가 폭탄을 묻는지, 어느 마을이 공격을 책임지는지, 적의 보급선이 어디를 지나는지가 그렇게 드러납니다.

이라크 신자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그 작동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팔란티어의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를 훑은 끝에 하나의 패턴을 짚어냈습니다. 그 지역에서 벌어진 공격과 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한 마을에 사는 특정 집단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름을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을 연결을, 기계는 화면 위에 선으로 그어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작업의 규모와 속도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팔란티어는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메타콘스텔레이션(MetaConstellation)' 시스템에 거대 언어 모델을 결합했습니다. 위성, 통신, 기밀 출처에서 들어온 정보가 하나로 녹아들었고, 재밍이 난무해 통신이 끊기는 혹독한 전장에서도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시스템을 쓰면서 타기팅 비율을 스무 배 넘게 끌어올렸다고 평가됩니다. 『타임』은 우크라이나를 "AI 전쟁의 실험실"이라고 불렀습니다. 표현은 점잖지만, 그 실험실에서 실험되는 것은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찾아내 타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팔란티어 요원들이 우크라이나 병력과 함께 전장에 배치되어 직접 기술을 지원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준 결정을 순수한 선의로만 읽기는 어렵습니다. 팔란티어로서는 자사 제품이 실제 현대전에서 어떤

위력을 내는지를, 전 세계의 군대와 정부 앞에 생중계로 증명한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광고로는 살 수 없는 신뢰가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자선과 영업이 같은 결정 안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팔란티어가 처음부터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였다는 사실을, 카프는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회사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서구의 시민적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테러와 싸울 기술을 만들겠다는 사명 아래 2003년에 세워졌습니다(공식 운영은 2004년). 카프는 이 임무를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빗대어 "샤이어를 구하는 것(saving the Shir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화로운 작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핵심 소프트웨어의 이름이 고담(Gotham)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고담은 배트맨이 지키는 도시, 어둠과 범죄가 들끓는 곳의 이름입니다. 숨어 있는 악당들의 그물을 찾아내 일망타진하겠다는 세계관이,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 풀이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기보다, 제품의 성격과 이름을 잇대어 본 해석에 가깝습니다.)

초기 성장의 결정적 발판은 미국 중앙정보국이었습니다. CIA가 직접 회사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CIA의 벤처 투자 부문인 인큐텔(In-Q-Tel)이 약 2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돈보다 중요했던 것은 돈에 달려 온 기회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인큐텔의 투자를 발판으로 FBI, CIA, 국방부 기밀 부서 세 곳에서 실제 데이터를 다루며 시범 프로젝트를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갓 만들어진 작은 회사가 미국 정보기관의 깊숙한 자료를 손에 쥐었다는 뜻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오래 골치를 앓던 문제가 급조폭발물, 곧 길가에 묻힌 폭탄이었습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조각을 모았습니다. 지문 스캔, 노획한 휴대폰 번호, 정보원의 보고, 과거 공격이 일어난 위치. 이것들을 하나로 엮자, 안전한 이동 경로가 보였고 폭탄을 만드는 자들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올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카프가 이 일에 부여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군인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회사의 숭고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2011년 네이비실이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해 사살했을 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카프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을 만났을 때 교황이 한 말을 떠벌리는 평판을 얻으면, 다시는 교황을 만날 수 없다." 정보기관과의 관계가 침묵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는 침묵으로 과시했습니다.

전장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캐나다의 연구소 시티즌 랩(Citizen Lab)과 손잡고, 달라이 라마의 내부 네트워크가 한 외국 정부의 거대한 사이버망에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데이터를 쫓는 같은 기술이, 이번에는 감시당하는 쪽을 지키는 데 쓰인 셈입니다. 회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즐겨 꺼내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2021년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던 카불 공항의 혼란도 그 목록에 들어갑니다. 국방부의 긴급 호출을 받은 팔란티어는 며칠 만에 군대와 민간 기관의 데이터를 한데 엮는 체계를 세웠습니다. 17일 동안 약 12만 5천 명이 그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흩어진 명단과 위치와 일정을 한 화면에 모으는 일, 곧 전장에서 적을 찾아내던 그 기술이, 사람을 대피시키는 데 쓰인 장면이었습니다.

팔란티어가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다른 기업이 비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2018년, 구글 직원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인공지능을 군사적 살상에 쓰는 일에 손을 보탬 수 없다며, 직원들은 국방부의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에서 회사가 발을 빼라고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철수했습니다.

팔란티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전에 벌인 한 판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기 조달 시장은 오랜 관행에 묶여 있었습니다. 성능이 증명되지 않은 대형 방위산업체들이 3만 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를 들고 와 계약을 따내는 구조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이 관행을 깨려고 2016년 미 육군을 상대로 전례 없는 소송을 걸었고, 두 차례 모두 이겼습니다. 실력으로 겨루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신생 기업이 군을 이긴 것입니다. 이 승소를 분기점으로 국방부와의 계약이 봇물 터지듯 늘기 시작했습니다.

카프는 그 빈자리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메이븐은 전장의 여러 센서와 위성 데이터를 통합해, 건조터미에서 바늘을 찾듯 적의 표적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상과 사진을 기계가 분석해 무엇이 적의 차량이고 무엇이 적의 병력인지를 가려냅니다. 사람이 며칠 걸릴 일을 기계가 몇 초에 해냅니다. 구글 직원들이 양심의 문제로 떠난 바로 그

일을, 카프는 도덕적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두 회사가 어떻게 갈라섰는지를 보면, 카프라는 사람이 더 선명해집니다. 한쪽에는 살상 기술에 선을 그은 실리콘밸리가 있고, 다른 쪽에는 그 선을 넘는 것이야말로 책임이라고 믿는 카프가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다만 카프가 그 선택으로 무엇을 얻었는지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메이븐 계약은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2024년 5월 팔란티어가 국방부와 맺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계약 규모는 4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5월, 국방부는 이 계약을 12억 7,50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4억 8천만 달러에서 12억 7,500만 달러로. 1년 만에 약 8억 달러가 더 얹혔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이유는 "수요 증가"였습니다. 군인 사용자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더 쓰겠다고 몰려든다는 뜻입니다. 2025년 4월에는 나토(NATO)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미 35개 군사 조직에서 2만 명 넘는 사용자가 메이븐을 쓰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숫자도 같은 곡선을 그립니다. 2026년 1분기, 팔란티어의 매출은 1년 전보다 85퍼센트 늘어 16억 3,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 부문 매출만 6억 8,700만 달러로 84퍼센트 늘었습니다. 회사는 2026년 한 해 매출 전망을 76억 달러 안팎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9·11 직후 인큐텔에서 받은 200만 달러로 시작한 회사가, 한 분기에 16억 달러를 버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2026년 들어 2,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드웨어의 속도전도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미 육군에 도입된 '타이탄(TITAN)' 트럭은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실은 차량입니다. 2025년 3월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럭은 설계에서 육군 인도까지 90일 만에 끝났습니다. 군사 하드웨어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속도였습니다. 트럭 안에서 군인은 드론 피드와 레이더를 손으로 일일이 대조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표적을 찾아내고, 추적하고, 어떤 무기로 때릴지까지 골라 제안합니다. 사람의 일은 줄고, 기계의 판단은 늘었습니다.

이 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 또렷하게 드러낸 것은 카프 자신의 말입니다. 그는 전쟁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적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미국의 압도적 무력에 분노하고 뺨속까지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냉전 시대에 핵무기가 맡았던 억지의 역할을, 이제는 AI가 맡는다는 것입니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카프가 파는 물건의 본질입니다.

그 신념의 뿌리에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카프는 동료 니콜라스 잠피스카와 함께 『기술 공화국(The Technological Republic)』을 펴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의 말을 끌어옵니다. 서구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사상이나 가치, 종교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조직화된 폭력(organized violence)을 적용하는 데서 우월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듣기 거북한 문장입니다. 카프는 그 거북함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끌어안습니다.

그의 논리는 한 줄로 이어집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능력주의, 사생활 보호 같은 서구의 권리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온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은 자국민에게 이런 권리를 주지 않는다. 미래의 세계 질서는 어느 나라가 전장에 AI를 더 잘 구현하느냐로 갈린다. 서방이 이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잃으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무너진다. 그러니 실리콘밸리는 사진 공유 앱이나 음식 배달 알고리즘 같은 알뜰한 장사에서 벗어나, 국가 방위에 복무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 신념이 제1장에서 본 어린 시절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떠올려 보면,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파시즘이 오면 자신이 제일 먼저 벽에 매달려 총살당할 사람이라고 말하던 유대인이자 혼혈인 소년. 그 소년이 품은 공포는, 자신 같은 이방인을 품어주는 사회의 자유와 법치를, 압도적 무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미군을 두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인종 통합을 이뤄낸 진짜 능력주의 기관이라고 찬사를 보낸 것도 이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 연결은 카프 본인이 한 줄로 명시한 진술이라기보다, 그의 발언들을 잇대어 본 해석입니다.)

이 지점까지 따라오면, 카프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웅담처럼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외톨이로 자란 철학자가, 자유 세계를 지키는 방패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 방패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같은 기술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 방패는 그물이 되기도 합니다.

가자가 그 다른 면을 날카롭게 비춥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1,200명의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직후 카프는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로 "팔란티어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시양비의 자리가 아니라, 진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는 피터 틸과 함께 텔아비브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스라엘 국방부와 군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학살 현장인 크파르 아자 키부츠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사라진 인질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쓰였고, 2024년 4월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대규모로 쏘았을 때 이스라엘이 몇 분 만에 이를 격추하는 데도 팔란티어의 기술이 쓰였다고 독립 분석가들은 평가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전장에 들어간 AI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둘러싸고, 극심한 윤리 논란이 터졌습니다. 논란의 한복판에 선 것은 '라벤더(Lavender)'라는 이스라엘의 AI 표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인은 각 표적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데 고작 20초를 할당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개의 표적이 처리되었고, 사람은 기계가 내놓은 결정에 도장을 찍는 역할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명단을 만들고, 사람은 승인 버튼을 누릅니다. 18개월 넘게 이어진 가자의 민간인 대량 살상 논란이, 이 시스템을 향한 비판으로 모였습니다.

카프는 줄타기를 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럽게 밝히면서도, 자사의 제품이 바로 그 라벤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회사는 자사 소프트웨어가 가자 폭격에 쓰인 라벤더나 가스펠 같은 표적 시스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판하는 쪽은 이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팔란티어가 표적 명단을 만드는 데이터 통합의 중추 역할을 함으로써, 자동화된 살상의 과정에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카프 자신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때때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다고. 그러면서도 그는 기술이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항변했고, 이스라엘의 민간인 대 전투원 사상자 비율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우수하다고 옹호했습니다. 같은 입에서 나온 두 문장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가자의 폐허를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방패가 그물로 바뀌는 장면은 해외 전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 안에서, 시민의 일상 위에서 벌어집니다.

2018년 뉴올리언스에서 한 프로그램이 폭로되었습니다. 경찰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로 시민의 소셜 미디어를 분석하고, 범죄 이력을 추적하고, 갱단원과의 관계망을 그렸습니다. 그 데이터로 어떤 개인이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 혹은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AI로 예측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을 점찍는 일, 이른바 '프리크라임(pre-crime)'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팔란티어 자문역이자 민주당 정치

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의 주도로, 여러 해 동안 비밀리에 돌아갔습니다. 뉴올리언스 시민은 물론, 시청의 주요 관계자들조차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의 '레이저 작전(Operation LASER)'도 비슷했습니다. 범죄 기록과 사회적 연결망 데이터를 모아 만성 범죄자의 점수를 매기고, 특정 개인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찍었습니다.

제일 거센 논란을 부른 것은 이민세관집행국(ICE)과의 계약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부터 ICE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왔습니다. 이 협력은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를 지나며 계속되었습니다. 2025년 4월, ICE는 팔란티어에 3천만 달러를 주고 '이민운영체계(ImmigrationOS)'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해 9월에는 약 2,990만 달러짜리 추가 계약이 더해졌고, 2025년 한 해 ICE와 팔란티어의 계약 규모는 약 2억 8,7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팔란티어는 ICE의 제일 큰 감시 기술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지는 화면 위의 동작 하나로 요약됩니다. ICE 요원이 지도 위에 동그라미나 사각형을 그리면, 그 안의 표적 인물들이 핀으로 떠오릅니다. 그 핀은 어디서 오는가. 국세청의 세금 데이터, 사회보장 기록, 여권, 차량 번호판 판독기, 직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한데 녹아듭니다. 흩어진 정부 데이터가 한 화면에 꿰어지는 그 기술, 곧 전장에서 적을 찾아내던 바로 그 기술이, 이번에는 미국 안에 사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결과는 수만 명을 향한 강제 추방 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비판은 거셌습니다. 팔란티어 본사 앞에 시위대가 모였고, 카프와 회사를 향해 '테크노파시즘(technofascism)'이라는 말이 날아들었습니다. 무고한 빈민층과 소수자를 겨냥하는 기계라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일부 엔지니어들이 충분한 감독 없이 대규모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만드는 일이 위험한 선을 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원들의 압박이 몇 주간 이어지자, 카프는 사내 영상으로 직접 답해야 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답은 물러섬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2월, 카프는 한 방송에서 ICE에 반대해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정부에 팔란티어를 더 많이 쓰라고 시위해야 한다고.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같은 소프트웨어가, 국가가 시민의 사생활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막는 데도 똑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시의 도구가 곧 감시를 막는 도구라는, 뒤집힌 주장입니다. 어린 시절 시위 현장에서 자란

진보주의자가, 이제는 자기 회사 앞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더 많은 감시를 요구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ICE와의 협력을, 카프는 끝까지 거두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1기의 무관용 가족 분리 정책에 자사 소프트웨어가 쓰였다는 비난과 시위가 빗발치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든 이유는 한결같았습니다. 서구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려면 엄격한 국경 통제가 필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념이 계약 유지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동기였는지는 카프 본인의 명시적 진술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의 공개 발언에서 추론한 해석입니다.)

같은 그물이 유럽에도 펼쳐졌습니다. 덴마크 국가경찰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들였고,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7년에 3억 3천만 파운드짜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계약을 맺었습니다. 병원의 자료를 한데 엮어 환자를 더 잘 돌보겠다는 사업이었지만, 미국의 정보 기업이 영국 국민의 의료 기록을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독일에서는 헤센주를 시작으로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지에서 고담을 바탕으로 한 '헤센데이터(Hessen Data)'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범죄자의 차량, 통화 기록, 접촉자를 버튼 하나로 엮어 관계망을 그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명확한 혐의가 없는 무고한 시민의 데이터까지 무차별로 대조하도록 허용한 점이 위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소는 개정 시한을 주며 법을 고치라고 명했습니다. 데이터를 꿰는 기술의 위력이, 곧 그 기술이 어디까지 사람을 들여다봐도 되는가라는 헌법의 물음으로 되돌아온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판 앞에서 카프가 되풀이하는 항변이 하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안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사를 처음 세울 때부터 무차별적인 데이터 수집을 거부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대신 '서술 기반 검색(predicate-based search)'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들여다보려면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막연히 온 국민의 데이터를 긁어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이유가 있는 대상만 골라 보게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를, 지울 수 없는 기록(immutable logs)으로 남기는 구조입니다. 직렬화와 역직렬화, 브랜칭 같은 기술 용어가 동원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들여다보았는지가 영구히 남아,

나중에 빠짐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프는 이 점을 들어 팔란티어가 "세계에서 오용하기 제일 어려운 제품(the hardest product in the world to abuse)"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과거 미국의 한 민간 기관이 무슬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단호히 거절한 일을, 그는 그 증거로 내세웁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그의 해버퍼드 동창이자 전기 작가인 마이클 스타인버거가 냉정하게 짚습니다. 스타인버거의 전기 『실리콘밸리의 철학자(The Philosopher in the Valley)』가 말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실에서 팔란티어는, 자사 소프트웨어가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느냐를 직접 단속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빈틈이 아니라 권한의 구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누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제한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킬지를 정하는 권한은 결국 팔란티어가 아니라 고객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고객은 정부이고 군대이고 수사기관입니다. 접근 기록을 아무리 꼼꼼히 남긴다 해도, 그 기록을 누가 들여다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를 정하는 것 역시 고객입니다. 도구를 쥐 주체가 인권을 가벼이 여기거나 권위주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라면, 그 빈틈없는 로그는 누구를 향한 약속도 되지 못합니다. 남용을 막는 잠금장치의 열쇠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회사의 다른 선택이 비교로 떠오릅니다. AI 기업 앤스로픽은 미 국방부가 자사의 챗봇 클로드를 시민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에 쓰는 것을 거부하며, 명확한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때 스스로를 네오마르크스주의자이자 진보주의자로 부르며 데이터 보호와 민권을 외쳤던 카프는, 구글이 양심을 이유로 떠난 메이븐의 빈자리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쪽은 선을 긋고, 한쪽은 선을 넘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를 이 책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프가 초기에 세웠던 그 윤리적 방어막이, 거대한 국가 안보 사업과 천문학적 이익 앞에서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해 둘 만합니다. 스타인버거의 전기가 한쪽으로 기운 "미화된 전기"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카프를 영웅으로만 그려도, 악당으로만 그려도, 둘 다 그를 놓치는 일이 됩니다.

키이우의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젤렌스키 앞에 앉은 카프는 무엇을 팔고 있었을까요. 자유 세계를 지키는 방패였을까요, 아니면 자사 제품의 위력을 증명할

무대였을까요. 우크라이나의 병사를 살린 기술이었을까요, 가자에서 20초 만에 사람을 명단에 올린 기술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ICE 요원이 지도 위에 그린 동그라미 안에서 핀으로 떠오른 사람들은, 카프가 어릴 적 두려워하던 그 박해의 대상과 얼마나 다른 처지였을까요.

이 물음들은 답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카프 자신이 그 답을 봉합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압도적 무력만이 법치와 자유를 지킨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그 무력이 잘못 쓰일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제품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항변합니다. 파시즘이 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하면서, 파시즘이 손에 쥐면 누구보다 무서워질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방패와 그물은 같은 기술의 두 얼굴입니다. 카프는 그 둘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방패 쪽을 골랐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이 기술이 다음에 누구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두 얼굴의 AI 무기

전장 데이터 통합 기술은 자유 진영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 감시의 도구로 작동함.



12억 7,500만 달러

2022년 알렉스 카프-젤렌스키 회동 후 우크라이나군에 메타 콘스텔레이션 시스템 무상 지원.

미국방부 메이븐 프로젝트 계약 규모 1년 만에 4억 8천만 달러에서 12억 7,500만 달러로 급증 (2024~2025).



2억 8,700만 달러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2억 8,700만 달러 계약 체결,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작전 지원 (2025).

NotebookLM

제6장 기술 공화국의 선언과 실리콘밸리 비판



세계 지도자와 손을 맞잡은 팔란티어, 다보스 2026

2025년 2월 18일, 서점의 신간 매대에 표지가 검은 책 한 권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기술 공화국: 하드 파워, 소프트 빌리프, 그리고 서구의 미래(The Technological Republic: Hard Power, Soft Belief, and the Future of the West)』였습니다. 출판사는 크라운 커런시(Crown Currency), 저자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 그리고 회사의 법률 고문이자 기업 업무 책임자인 니콜라스 잠피스카(Nicholas W. Zamiska). 책은 나오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코딩 한 줄 못 하는 철학 박사가 쓴, 실리콘밸리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책이 던진 첫 문장은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길을 잃었다(Silicon Valley has lost its way). 그 한 줄을 풀어내는 데 책 한 권이 걸렸습니다.

카프가 이런 책을 낼 사람으로 보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종종 자기 회사 제품보다 정치와 철학을 더 길게 말했고, 무대 위에서 태극권 동작을 선보이거나 험클어진 머리로 등장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책상에 앉아 잠피스카와 함께 한 문장 한 문장을 다듬어 선언문을 썼습니다. 회사의 분기 실적이 아니라

서구 문명의 운명을 주제로 삼은 책이었습니다. 표지의 무게가 곧 그가 하고 싶은 말의 무게였습니다.

CEO가 책을 내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보통은 성공담입니다. 어떻게 회사를 키웠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독자에게 위안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카프의 책은 그 장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 자랑을 하러 책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동종 업계를 향한 고발장을 쓰러 앉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실리콘밸리를 향해, 너희가 가진 재능을 헛된 곳에 낭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세웠습니다. 책을 펴는 순간 적이 늘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카프의 논리는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잊은 사실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오늘의 실리콘밸리는 정부와 군대의 돈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부터 연방 정부는 대륙간 로켓과 정찰 위성, 그리고 훗날 인공지능의 씨앗이 된 연구들에 돈을 냈습니다. 마운틴뷰에 세워진 페어차일드 카메라 앤드 인스트루먼트(Fairchild Camera and Instrument)는 1950년대 후반 CIA의 정찰기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한동안 미국 해군의 탄도 미사일은 전량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생산됐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달로 사람을 보낸 아폴로 계획, 인터넷의 조상이 된 다르파(DARPA)의 아파넷. 이 모든 것이 국가의 목적과 엔지니어의 야망이 한자리에서 만난 결과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칩은 처음부터 미사일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실리콘밸리는 이 족보를 부끄러워합니다. 카프의 진단은 매섭습니다. 오늘의 기술 기업들은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일궈냈다는 착각에 빠져, 국가 안보와의 뿌리를 불편한 과거로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 시대의 뛰어난 두뇌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고. 사진 공유 앱, 음식 배달 알고리즘, 심지어 AI 여자친구. 그는 이것을 "앱의 폭정(tyranny of the apps)"이라 부르며, 거기에 반역하라고 촉구합니다. 아이폰이 정말 우리 문명의 위대한 창조물인가. 카프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 물건이 우리 삶을 바꾼 건 맞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감각 자체를 가두고 있다고. 한 세대의 엔지니어가 로켓을 띄우던 자리에서, 다음 세대의 엔지니어는 사람들이 화면을 더 오래 들여다보게 만드는 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름을 가립니다. 막연한 비판이 아니라 실명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룬 혁신은 결국 손목과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자아의 확장(extensions of the self)'에

그쳤다고 평합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혁명이었을 뿐, 더 큰 국가적 기획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어떤 거대한 세계관도, 정치적 기획도 없이 그저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만 몰두하는 엔지니어 세대를 대표한다고 봅니다. 구글의 옛 모토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를 두고는 더 날카롭습니다. 그 부정형 문장 뒤에는 "얇팍하게 위장된 허무주의(thinly veiled nihilism)"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안 하겠다는 다짐에서 그는 텅 빈 자리를 봅니다.

그리고 2018년의 한 장면을 꺼냅니다. 그해 구글 본사에서는 직원 수천 명이 사내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인공지능 표적 식별 사업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에 회사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사람을 겨누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구글 경영진은 직원들의 압력에 밀려 계약 갱신을 포기했습니다. 도덕적 순수함을 지킨 결정으로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카프가 보기에 그것은 빈 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 의자에 앉은 것이 바로 팔란티어였습니다. 구글이 물러난 자리에서 팔란티어는 전장의 미군 병사를 위해 치명적인 인공지능을 기꺼이 만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같은 기술 앞에서 한 회사는 손을 뗐고, 다른 회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프는 이 대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목에 담긴 두 단어를 풀어 보면 카프의 생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드 파워(hard power)는 군대와 무기,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고 위협하는 힘입니다. 소프트 빌리프(soft belief)는 한 사회가 자기 자신에 대해 품는 믿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신념입니다. 카프의 주장은 둘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력만 있고 그것을 쓸 신념이 없으면 무력하고, 고결한 신념만 있고 그것을 지킬 힘이 없으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서방은 신념을 잃었고, 실리콘밸리는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었습니다. 두 줄기를 다시 잇는 것이 그가 말하는 기술 공화국의 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더 무겁습니다.

카프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선언합니다. 냉전을 떠받치던 '원자력 억지의 시대(atomic age of deterrence)'는 끝났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로운 억지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한 문장을 거듭 인용합니다. 서구 문명이 일어선 것은 사상이나 가치, 종교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조직화된 폭력을 적용하는 우월성(superiority in applying organized violence)" 덕분이었다는

말입니다. 듣기 거북한 문장입니다. 카프는 바로 그 거북함이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기의 진짜 하드 파워는 소프트웨어 위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과 서방이 전장에서 AI 무기 체계로 압도적 우위를 쥐지 못하면 그 우위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언합니다. 진짜 질문은 AI 무기가 만들어질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 것이냐다. 도덕적 순수함을 지키겠다며 서방이 머뭇거리는 동안, 적대국들은 어떤 연극 같은 토론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가 보기에 미국 헌법은 신이 부여한 권리를 약속합니다. 표현의 자유, 무기를 지닐 권리, 사생활의 보호. 권위주의 국가는 자국민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지킬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카프의 답은 차갑습니다. 도덕적 호소나 웅변(soft power)이 아니라, 그 호소를 뒷받침할 실제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다면, 그의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카프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대학에서 사회 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영향 아래 공부했고, 논문은 카롤라 브레데(Karola Brede)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하버마스는 합리적 대화와 토론으로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간다고 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주고받으면 결국 더 옳은 결론에 이른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술 공화국』의 카프는 그 믿음의 한계를 짚습니다. 적이 토론에 응하지 않을 때, 대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합리적 대화를 배운 학자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가 평생 두려워한 것은 파시즘이었고, 파시즘은 토론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독일의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교양 높던 사회가 어떻게 야만으로 무너졌는지를 그 나라의 언어로 읽은 사람입니다.

기술 엘리트들이 국가 방위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를 그는 빛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기업과 엔지니어가 진공 속에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해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그들은 깊은 '도덕적 빚(moral debt)'을 지고 있습니다. 카프의 비유는 간명합니다. 미 해병대원이 더 좋은 소총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만들어줘야 한다고. 소프트웨어도 똑같다고. 그러면서 그는 실리콘밸리를 향해 한 줄로 쏘아붙입니다. "공짜 이메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Free email is not enough)." 무료 검색과 무료 메일을 세상에 풀어놓은 것으로 국가에 진 빚을 다 갚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책은 논쟁적인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카프는 국가 방위의 짐을 소수의 군인에게만 떠넘기는 사회를 비판합니다. 그는 보편적 국가 봉사(national service)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전쟁의 위험과 비용을 모두가 나눠 질 때에만 다음 전쟁을 신중히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갈 사람이 남의 자식뿐일 때 사회는 전쟁을 가볍게 여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후 독일과 일본의 무장 해제(neutering)는 되돌려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독일의 비무장은 오늘날 유럽이 비싼 값을 치르는 과잉 교정이었고, 일본의 평화주의는 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다시 강한 하드 파워로 무장해 기술 중심 서방 동맹의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평화주의를 미덕으로 배운 세대에게는 거슬리는 말입니다. 카프는 그 거슬림을 감수합니다.

그는 서구 내부의 문화적 상대주의와 정치적 올바름을 정면으로 겨눕니다. 어떤 문화는 경이로운 발전을 이뤘고 어떤 문화는 퇴행적이고 해롭다는 가치 판단조차 금기가 된 시대를, 그는 거부합니다. 모든 문화가 평등하니 비판도 평가도 하지 말라는 새 도그마를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의 포용인가(inclusion into what?)"라고 그는 되묻습니다. 정의할 국가적 문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포용을 외치는 것은 속이 빈 다원주의(hollow pluralism)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쉬운 분류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우파다. 그런데 그 분류는 책을 끝까지 읽기 전에 닫힌 결론입니다.

같은 책에서 카프는 강력 범죄를 방치한 정치인들을 질타합니다. 그들이 유권자와 기부자의 눈치를 보느라 사람 목숨을 구할 절박한 실험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미국 곳곳의 정치인들이 강력 범죄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고 체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무원들의 보수가 형편없어서 좋은 인재가 공직을 떠난다고, 공공 부문의 보상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간 기업이 연방 정부가 공무원에게 주는 수준으로 직원에게 월급을 준다면 그 회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공인의 사생활을 무자비하게 들춰내고 돈 버는 일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여론이, 결국 괜찮은 사람들을 공직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이것은 우파의 언어만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삶, 공공의 책무, 약자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같은 입에서 나옵니다. 카프를 한 단어로 못 박으려는 시도는 책의 다음 페이지에서 매번 부서집니다.

그가 공직 사회를 비판하는 방식에도 그의 출신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공무원이 우리의 성직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공직에 들어오라는 요구가, 정작 일 잘하는 보통 사람을 공직에서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결벽이 무능을 부른다는 진단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사람을 뽑고 능력으로 평가하는 조직을 신뢰합니다. 제1장에서 그가 미군을 두고 미국 사회에서 인종 통합을 처음 이뤄낸 진짜 능력주의 기관이라 찬사했던 것과 같은 결입니다. 출신과 배경을 따지지 않고 성과로 줄을 세우는 곳에서,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던 그는 비로소 공정함을 봤습니다.

그가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는 대목에서 책의 결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시장이 멈춰선 자리에서 무언가를 세우려 시도하는 사람으로 머스크를 꼽으며, 억만장자는 돈만 벌면 된다는 듯 그의 거대한 호기심을 비웃는 문화를 비판합니다. 기업가의 야망이 국가적 기획과 만나는 것을 장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단의 해법으로 카프가 내미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방법론입니다. 정부가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링 사고방식(engineering mindset)'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탁상공론과 비효율적 관료주의 대신, 결과를 보고 직접 문제에 부딪치며 실패를 거듭하며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는 진짜 근본 원인이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묻는 '다섯 번의 왜(five whys)', 중앙의 지시 없이 우리가 스스로 최적해를 찾아가는 벌떼의 움직임, 칼 포퍼(Karl Popper)가 말한 시계와 구름의 비유를 끌어옵니다. 경직된 시계가 아니라 유연한 구름처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힘주어 말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순응이 아니라 반항에서 나오며,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설적 불복종(constructive disobedience)'을 장려하는 문화를 세워야 한다는 것. 이 방법론은 책 속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팔란티어를 굴리는 실제 규칙이었습니다. 한 고객사가 어떤 문제를 호소하면, 팔란티어 직원들은 그 증상의 원인을 묻고, 그 원인의 원인을 또 묻습니다. 표면의 불편이 아니라 뿌리에 닿을 때까지 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는 명령 계통이 위에서 아래로 단단히 짜인 조직 대신,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순간의 결정권을 쥐는 느슨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벌떼가 우두머리의 지시 없이도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듯, 회사가 그렇게 움직이기를 그는 바랐습니다. 난독증을 앓던 아이가, 모범 답안의 길이 막혀 자기만의 길을 내야 했던 그 소년이, 이제 그 불복종을 경영 철학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화살을 제일 많이 맞은 쪽은 우파가 아니었습니다. 카프 자신이 평생 표를 줬던 사람들, 민주당이었습니다.

이 비판의 무게를 알려면 그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카프는 한때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 신사회주의자라 불렀습니다. 스탠퍼드 로스쿨 시절에는 자유지상주의자 피터 틸과 정치 이념을 두고 야생동물처럼 격렬하게 부딪친 좌파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고,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표를 던졌으며, 2020년과 2024년 사이에는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캠프에 돈을 낸 주요 기부자였습니다. 2017년 무렵까지만 해도 그는 트럼프를 두고, 그 사람의 어떤 점도 존경하지 않으며 그보다 덜 매력적인 인물을 꾸며내기도 어렵겠다고 쓰아붙였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는 자신을 '당원증을 가진 진보주의자(card-carrying progressive)'라 불렀습니다. 가난한 모든 사람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진영을 향해 날 선 말을 쏟아냅니다. 그의 항변은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자신이 좌파를 떠난 게 아니라, 좌파가 자신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2025년 그의 전기를 펴낸 마이클 스타인버거(Michael Steinberger)에게 카프는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정치를 바꾸지 않았다(I didn't shift my politics)." 진보가 진보의 뜻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진짜 진보란 노동자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의 진보 진영은 통제 없는 '열린 국경(open borders)'을 목인하며 노동의 값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풀어 통제력을 잃으면 임금이 무너지고, 그 분노를 먹고 극우가 자라며, 한번 극우가 들어오면 다시는 쫓아낼 수 없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철저한 국경 통제는 보수의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지키는 진보의 정책입니다.

이 신념은 말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팔란티어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자, 불법 이민자와 중범죄자 추방에 기술을 쓴다며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회사 앞에 사람들이 모였고, 직원들조차 불편해했습니다. 카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국경 정책은 국가 안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다며 계약을 끝까지 옹호했습니다. 한때 시위 현장에서 부모의 손을 잡고 자란 아이가, 이제 자기 회사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마주하고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어 있음(woke)'이라는 사고방식을 회사와 미국 전체를 위협하는 핵심 위험으로 꼽기까지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기술을 '반(反)워크'라 부른 적도 있습니다. 한 회사의 CEO가 자사 제품을 정치적 진영의 언어로 규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기업은 정치를 피해 갑니다. 양쪽 고객을 다 잃지 않으려는 계산입니다. 카프는 그 계산을

거부했습니다. 회사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곧 회사의 정체성이라 믿었습니다. 그 선택이 일부 인재를 떠나게 만들고 일부 시위를 부른다 해도, 그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당 안의 지식인 계층과 명문대 기관들이 서구의 지적 전통을 자기혐오와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정체성 정치와 끝없는 피해의식 논쟁에 빠져, 정작 빈곤층과 소수자와 흑인 노동자가 겪는 실제 범죄 피해와 경제적 추락은 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주 드는 사례는 독일입니다. 그는 성인 인생의 절반을 독일에서 보냈고,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 녹색당이 15~20퍼센트 득표율의 소수 정당이면서도 도덕적 우월감을 무기로 이민 논의 자체를 극우의 범죄로 낙인찍고, 결국 이민 정책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 결과 분노한 평범한 시민들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으로 향하는 파국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누군가의 맹목적 이념이 만들어낸 '생산품(product)'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도 이 길을 가면 스스로 목을 조르는 '자살 춤(suicide dance)'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모든 분노가 한 점으로 모인 날이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날, 스타인버거의 전기에 따르면 카프는 이민 문제가 민주당에 선거상 불리한 쟁점을 넘어 유대계 미국인의 물리적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가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분기점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그는 피터 틸과 함께 텔아비브에서 팔란티어 이사회를 열고 이스라엘 국방부와 군사 기술 계약을 맺었으며,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로 팔란티어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제1장에서 어린 카프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봅시다. 파시즘이 닥치면 제일 먼저 벽에 매달려 총살당할 사람이 자신일 것이라던 그 문장. 10월 7일은 그 오래된 공포를 추상에서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어느 정당에도 무조건 묶이지 않는 '독립 유권자(independent)'로 규정합니다. 국경을 강하게 통제하고 미국의 억지력을 완벽히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라면 누구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한때 트럼프의 인간적 면모를 누구보다 혐오했던 그가, 이제는 트럼프가 이민 통제와 강한 억지력 재건이라는 두 가지에서만큼은 성과를 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를 향한 무조건적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진보를 버린 적 없다고 여전히 말합니다. 2024년

선거철에는 민주당의 방향에 전혀 기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트럼프에 반대해 투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두 진영 어느 쪽도 그를 온전히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한 단어로 묶고 싶은 사람들은 그를 '기술 민족주의자(techno-nationalist)'라 부릅니다. 상아탑에서 마르크스의 소외된 노동을 논하던 진보 철학도가, 더없이 차갑고 잔혹한 지정학적 경쟁의 현실을 마주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미국 우위를 신앙처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조차 그를 다 담지 못합니다. 그는 미국의 우위를 외치면서도 그 우위가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강한 군대를 옹호하면서도 그 군대가 인종 통합을 처음 이뤄낸 곳이라 칭찬합니다. 그의 민족주의는 순혈주의가 아니라, 자신 같은 혼혈과 소수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질서를 지키려는 데서 나옵니다.

박해의 1순위가 자신이라 믿어온 흑인 유대계 혼혈의 난독증 이단아가, 이제 치명적인 인공지능 무기로 서방의 우위를 지키는 것만이 역설적으로 자유와 다원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박해를 두려워한 사람이 감시와 표적의 기술을 파는 자리에 섰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이 진보 진영을 향해 큰 목소리로 호통칩니다.

책의 운명은 둘로 갈렸습니다. 독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미국 공영라디오(NPR)는 그해의 책으로 꼽았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양쪽에서 사람들이 이 책을 화제에 올렸습니다. 반면 일부 평론가들은 냉담했습니다.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를 비롯한 서평들은 이 책에 또렷한 주제가 없고 산만하다고 박하게 평했습니다. 한 서평은 그해 읽은 책 가운데 제일 실망스러웠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같은 책을 두고 한쪽은 시대의 선언문이라 부르고 다른 쪽은 알맹이 없는 잡문이라 불렀습니다. 그 분열 자체가 카프라는 인물을 둘러싼 평가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책은 분명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모순은 흠이라기보다 카프라는 사람 자체의 형태일지 모릅니다. 그는 우파의 언어로 군대를 옹호하면서 좌파의 언어로 노동자를 걱정합니다. 정체성 정치를 경멸하면서 자신을 유대인이자 혼혈로 규정합니다. 도덕적 호소의 무력함을 비웃으면서, 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덕적 호소입니다. 그를 보수로 묶으려 하면 진보의 문장이 튀어나오고, 진보로 묶으려 하면 군사주의가 가로막습니다.

이 모순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를 3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마이클 스타인버거는 같은 해 11월, 카프의 첫 전기를 펴냈습니다. 수십 시간에 걸친 카프 본인과 팔란티어 직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사업도 컴퓨터공학도 배운 적 없는 한 철학자가 어떻게 거대 기술 기업을 일궜는지, 그가 자기 회사가 하는 일의 윤리적 무게와 어떻게 씨름해 왔는지를 따라간 기록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운데 하나는 이 회사를 두고 "당신의 모든 데이터는 우리 것"이라는 제목으로 서평을 실었습니다. 전기 작가가 친구였다는 사실은 이 책에 양날의 칼이 됐습니다. 가까운 만큼 깊이 들여다봤지만, 가까운 만큼 미화의 혐의도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같은 해 출간된 자신의 전기 제목 그대로, 실리콘밸리의 철학자였습니다. 마이클 스타인버거가 붙인 책 제목은 『실리콘밸리의 철학자: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그리고 감시 국가의 부상(The Philosopher in the Valley: Alex Karp, Palantir, and the Rise of the Surveillance State)』 이었습니다. 저자는 카프의 해버퍼드 대학 동창입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무기를 팔고, 박해를 두려워한 사람이 감시 도구를 만들며, 진보를 자처한 사람이 진보를 꾸짖습니다. 카프가 던진 질문은 책의 마지막 장을 덮어도 닫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독자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실리콘밸리를 향한 반기

서방의 권리와 가치는 압도적인 군사적 하드 파워로만 지켜낼 수 있다는 선언.

The infographic features two stylized, rounded rectangular blocks on a dark base. The left block is light blue and labeled '소프트 빌리프' (Soft Power) with a smartphone icon. The right block is dark blue and labeled '하드 파워' (Hard Power) with a satellite and gear icon. Both blocks contain text describing their respective power types and associated criticisms or goals.

소프트 빌리프
앱과 소셜 미디어 개발에 몰두하는 구글 등 기존 기술 엘리트의 행태를 알박한 허무주의로 비판.

하드 파워
인공지능 무기 체계 개발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도덕적 의무로 규정.

2025년 2월, 카프와 니콜라스 잠피스카가 공동 집필한 『기술 공화국』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등극.

© NotebookLM

제7장 기인의 일상

뉴햄프셔주 라이먼의 숲속, 눈이 무릎까지 쌓인 좁은 길 위를 한 남자가 미끄러지듯 달려갑니다. 가느다란 크로스컨트리 스키 두 짝에 몸을 싣고, 폴을 번갈아 찍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입김이 허영게 피어오릅니다. 그는 노르웨이 스키 국가대표팀의 훈련복을 입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아무런 혈연도, 국적의 연도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날 그가 달린 거리는 19킬로미터 안팎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이 남자가 알렉스 카프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68억 달러의 보수를 받은 팔란티어(Palantir)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입니다.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전 세계의 군대와 경찰과 정보기관이 그의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그런 사람이 텅 빈 숲에서 혼자 스키를 탑니다. 실리콘밸리의 다른 억만장자들이 거대한 요트와 미술품과 화려한 파티로 부를 드러낼 때, 카프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부는 자동차도, 저택도, 사치도 아닌 곳에 쌓여 있습니다.

먼저 집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카프는 전 세계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 열한 채라고도 하고 스무 채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라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집들 대부분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레일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골라진 텅 빈 오두막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바닷가 별장을 사고, 누군가는 도심의 펜트하우스를 삽니다. 카프는 눈길 가까운 빈 오두막을 삽니다. 집의 값어치를 재는 그의 자는 남들과 단위부터 다릅니다.

그의 주된 거처는 라이먼의 숲속에 있는 오스트리아 양식 주택입니다. 현관문에는 메주자(mezuza)가 달려 있습니다. 유대교 가정이 문설주에 붙이는 작은 함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텅 비어 있다고 해도 될 만큼 단출합니다.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변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제약을 받고 약간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억만장자가 물건에 갇히는 느낌을 피하려고 일부러 빈집에 삽니다. 그는 이 뉴햄프셔 집을 두고 내향적인 사람들의 천국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정중하게 초대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요. 농담 같지만 그 안에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그는 휴대전화를 패러데이 새장(Faraday cage)에 넣어둡니다. 금속 그물로 전파를 막는 상자입니다. 신호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국가 안보와 첩보를 다루는

회사를 이끄는 사람의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내 전화를 도청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미친 짓일 것이라고요. 도청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사는 사람의 일상입니다. 빈집, 빈 벽, 그리고 전파가 차단된 전화기. 그가 만드는 제품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한 화면에 켜어 보여주는 감시 소프트웨어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신호는 금속 상자에 가둡니다.

그를 가까이서 떠받치는 사람들의 면면도 그의 세계를 비춥니다. 그의 곁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인 스키 강사가 그의 스키를 봐주고, 스위스-포르투갈계 요리사가 식사를 차리고, 오스트리아인 비서가 일정을 짜고, 미국인 사격 강사가 총을 가르칩니다. 그가 자신을 극단적인 내향형 인간(extreme introvert)이라 부르는데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의 둘레에 이만한 사람들이 둘러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분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려 하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에서 사람을 끌어옵니다.

은둔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뉴햄프셔의 숲에 리버 데이브(River Dave)라 불리는 은둔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 숲속에서 혼자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그 땅에서 쫓겨났고 오두막마저 불에 타버렸습니다. 카프는 이 낮선 은둔자에게 자기 돈 18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전기 작가 마이클 스타인버거(Michael Steinberger)는 이 기부를 자선이 아니라 한 은둔자가 다른 은둔자에게 보내는 깊은 연대의 표시라고 읽었습니다. 숲에서 쫓겨난 자에게 숲을 사랑하는 자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생활도 보통의 틀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카프는 신여덟이 되도록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갖는다는 생각만 해도 두드러기가 난다고 표현합니다. 대신 그는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두 여성과 동시에 오랜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한 동료는 이 독특한 방식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부일처(geographically monogamous)라고요. 한 지역에서는 한 사람만 만나니 그 지역에서는 일부일처이고, 지역을 옮기면 상대도 바뀝니다. 그는 1년에 250일에서 300일 가까이를 길 위에서 보냅니다. 그 떠도는 삶의 구조가 그의 연애 방식까지 빚어낸 셈입니다.

이 고독을 즐긴다는 사람이, 정작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의 모순이 또 하나 끼어듭니다. 그의 곁에는 늘 노르웨이인 경호원 부대가 진을 칩니다. 거기에

노르웨이인 스키 강사, 스위스-포르투갈계 개인 요리사, 오스트리아인 비서, 미국인 사격 강사가 그의 하루를 떠받칩니다. 한때 그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항상 곁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추파를 던질 기회조차 꺾인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고립을 원한다면, 그 고립을 지키기 위해 한 무리의 사람을 거느립니다. 빈집에 살되 빈손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제일 기이한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수장은 평생 자동차 운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까닭을 묻자 그는 특유의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가난해서 못 배웠고, 그다음엔 너무 부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요. 1만 2천 달러로 시작했던 사람이, 68억 달러를 받는 CEO가 되도록 운전대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부의 양 끝을 다 지나오는 동안 운전만은 끝내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농담 뒤에는 차가운 자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고, 견잡을 수 없는 공상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 합니다. 자전거도 타지 않습니다. 내리막을 빠르게 질주하는 알파인 스키도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몽상가(dreamer)라 부르며 이유를 댁니다. 공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내 넘어져 버린다고요.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러다 넘어진다. 15년 전에 그를 만났다면, 대화의 3분의 2는 5년 전에 했던 산책이나 대학원 시절의 어떤 대화, 어떤 동료가 던진 말의 숨은 뜻을 끝없이 허공에 대고 곱씹는 공상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머릿속이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빠른 내리막은 그에게 위험합니다. 몸은 길 위에 있는데 정신은 5년 전 산책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말하는 방식에도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는 쏟아내듯 폭발적으로 말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하고 나면 에너지가 급격히 방전됩니다. 그러면 실내용 고정식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거나, 책을 펼쳐 들고 에너지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말이 운동이고 운동이 충전입니다. 보통 사람의 하루가 일과 휴식으로 나뉘는다면, 카프의 하루는 폭발과 회복으로 나뉩니다.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이 스키이고 명상이고 기공입니다. 멈추지 않는 정신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찾아낸 균형의 방식입니다.

평지를 천천히 달리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만 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정신을 통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카프에게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취미가 아닙니다. 거의 종교적 수련에 가깝습니다. 그는 매일 12에서

15마일, 19에서 24킬로미터를 스키로 달립니다. 노르웨이 국가대표 훈련복을 일상복처럼 입고 출근합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팔란티어 본사를 그는 이디시어로 싸구려 옷 공장이라는 뜻의 슈마테스 팩토리(schmattes factory)라 부릅니다. 자기 회사를 옷 공장이라 부르며 노르웨이 스키복을 입고 나타나는 CEO입니다.

그의 운동 철학에는 숫자가 가득합니다. 그는 심폐지구력을 나타내는 VO2 max 수치가 90을 넘는 사람의 98퍼센트는 노르웨이인일 것이라는 이론을 믿습니다. 심장 박동수를 존 1과 존 4로만 엄격히 오가고, 그 중간인 존 2는 철저히 배제하는 노르웨이식 훈련법을 따릅니다. 철봉에 매달려 버티는 데드 행(dead hang)을 4분 36초 동안 해냈고, 최근에는 5분 5초까지 늘렸습니다. 그는 데드 행과 파머스 워크, 체중 대비 근력, 그리고 VO2 max를 인간의 진짜 건강을 재는 유일한 지표라 굳게 믿습니다. 과거에 그를 취재한 스타인버거는 대낮에도 롤러스키 훈련을 멈추지 않는 카프를 인터뷰하려고, 직접 자전거를 타고 그와 나란히 달리며 녹음기를 내밀어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려면 따라 달려야 하는 취재원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집착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는 데드 행과 파머스 워크, 체중 대비 근력, VO2 max만이 인간의 진짜 건강을 잴다고 믿습니다. 돈도, 직함도, 주가도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뿐이라는 뜻이, 그는 그 몇 개의 숫자만 끝없이 끌어올립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시장이 정하고, 정치의 향방은 유권자가 정하고, 파시즘이 올지 말지는 역사가 정합니다. 그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은 철봉에 몇 초 더 매달리느냐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매달립니다. 말 그대로 매달립니다.

유산소 운동만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명상과 기공(Qigong), 태극권(Tai Chi)을 수련합니다. CEO로서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을 다스리고, 부드러운 에너지와 강한 에너지의 균형을 잡는 데 태극권이 절대적이라 믿습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태극권 수련용 진검이 놓여 있습니다. 업무 중에도, 심지어 지원자를 면접하다가도 불쑥 일어나 태극권 동작을 시연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태극권 수업을 직접 이끌기도 합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의 사무실에 진검이 놓여 있고, 면접 도중에 CEO가 검을 휘두릅니다. 그가 멈추지 않는 정신을 붙들어 매는 방식입니다.

먹는 것마저 그답습니다. 컵케이크를 먹을 때면 그는 빵 부분을 가차 없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위에 얹힌 설탕 프로스팅, 아이싱(icing)만 파먹습니다. 사람들이 대체 왜

컵케이크의 빵 부분을 먹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독일어로 대화합니다. 미국 기업의 CEO가 독일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흔적을 일상의 언어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거가 그의 전기에 붙인 제목이 실리콘밸리의 철학자(The Philosopher in the Valley)인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카프는 코딩을 못합니다. 그가 만든 회사의 제품이 무엇으로 돌아가는지를 그는 직접 짜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정교한 데이터 기업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의 무기는 코드가 아니라 머릿속의 철학입니다. 하버마스를 읽던 프랑크푸르트의 대학원생이, 콜로라도의 옷 공장에서 노르웨이 스키복을 입고 진검을 휘두르는 CEO가 되었습니다. 두 모습 사이의 거리가 그를 설명하는 거리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보통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조금 더 평범하게 보이도록 가르쳐 줄 코치를 고용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농담합니다. 평범해지는 법을 배우려다 실패한 억만장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미국 코미디언 래리 데이비드(Larry David)에 빗대며, 자신의 리더십을 담은 시트콤이 나온다면 제목은 카프의 열정(Karp Your Enthusiasm)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미치광이(batshit crazy)라 부릅니다. 그것도 부끄러워하며가 아니라 유쾌하게, 거의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회사를 농담으로 이끌고, 면접에서 검을 휘두르고, 컵케이크의 빵을 잘라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한없이 가벼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가벼움 아래에 무거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 포브스 인터뷰에서 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팔란티어를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은 수영할 때, 기공을 수련할 때, 그리고 성관계 중일 때뿐이라고요. 깨어 있는 거의 모든 순간을 회사가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물속에서, 기공 동작 속에서, 그리고 사람의 품속에서. 그가 회사를 잊는 세 곳은 공교롭게도 모두 몸을 깊이 쓰는 자리입니다. 머리가 멈추지 않는 사람은 몸으로 머리를 끄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행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감정이 흐릅니다. 두려움입니다. 스타인버거는 카프를 진정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다름 아닌 두려움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유쾌함은 표면이고, 그 아래는 어둡습니다. 매일 19킬로미터를 달리는 스키도, 5분을 버티는 데드 행도, 빈집과 패러데이 새장도, 노르웨이 경호원 부대도, 따져보면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랐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몸짓입니다. 그 무언가의 이름을 카프는 분명히 뱉습니다.

그는 2023년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파시즘이 도래한다면, 제일 먼저 혹은 두 번째로 총살당해 벽에 매달릴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라고 늘 생각했다고요. 그의 영어 원문은 더 짧고 무겁습니다. 내 제일 큰 두려움은 파시즘이다(my biggest fear is fascism). 이 문장은 이 책의 첫 장에서 이미 한 번 울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 카프가 했던 말입니다. 파시즘이 오면 제일 먼저 총살당해 벽에 매달릴 사람은 나라는 그 말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시위 현장과 안식일 식탁에서 자란 혼혈 소년의 공포가, 신여덟의 억만장자 입에서 거의 토씨까지 같은 문장으로 다시 나옵니다. 30년이 흘렀는데 두려움은 한 글자도 닳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미 보았습니다. 유대인 소아과 의사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급진적 진보 가정의 아들, 극심한 난독증과 ADHD를 가진 아웃사이드. 파시즘적 폭력이 인종과 이념과 신경다양성을 잣대로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는다면, 카프는 그 조건에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맞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뼈로 알고 있었습니다. 명단을 만들어 보라, 누가 제일 먼저 목매달릴지. 내가 그 첫 번째일 것이다. 이것이 그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스타인버거의 분석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카프가 팔란티어를 세우고 거기에 집요하게 헌신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팔란티어는 카프 자신, 그리고 그와 같은 소외된 이방인들을 위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쌓아 올린 거대한 철옹성이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며 내리는 수많은 결정이 그를 짓누르는 불안과 파시즘에 대한 불길한 예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동력입니다. 무서워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서 성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프는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의 머릿속에서 학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탠퍼드 로스쿨 시절, 그는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자 피터 틸(Peter Thiel)과 야생동물처럼 격렬하게 정치를 두고 다뤘습니다. 그때의 카프는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법학의 길을 버리고 1990년대 중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대학교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은 비판 이론으로 이름 높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본산이었습니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같은 학파의 핵심 지식인들은 대부분 나치를 피해 망명한 좌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질문에 평생을 걸었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발전하고 제일 교육받은 나라였던 독일이, 어떻게 15년도 안 되어 히틀러를 뽑고 제노사이드의 야만으로 굴러떨어졌는가. 그들의 답은 어두웠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끝없는 진보가 거대한 관료주의를 낳고, 인간을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행정적 단위로 다루게 만들며, 그 비인간화가 끝내 파시즘을 잉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프는 그 어두운 결론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그는 평범한 노인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외투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나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카프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파시즘을 버리고 민주주의자가 되었는가였습니다. 답은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국의 사고방식과 압도적인 체제가 자신들을 더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화가 그를 스승들과 갈라놓았습니다. 파시즘의 진짜 치료제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기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 사고방식의 압도적 우위와 강력한 힘이라는 결론에 그는 도달했습니다. 스승들이 위험으로 본 그 힘을, 제자는 백신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거대한 모순이 놓여 있습니다. 파시즘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말한 사람이, 그 파시즘이 손에 쥐면 누구보다 무서워질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팔란티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 회사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라더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의 세금 기록과 생체 정보와 개인 데이터를 하나로 융합해 궁극의 국가 감시 도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그토록 경계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을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행정적 단위(administrative units)로 환원하는 기술. 그 학파의 스승들 밑에서 파시즘의 기원을 공부하던 학자가, 그 위험을 거꾸로 비틀어 정보 통제 플랫폼으로 구현해 냈습니다.

그는 이 모순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자기 책 표지에 우리의 제품은 때때로 사람을 죽이는데 쓰인다(our product is used on occasion to kill people)는 문구를 일부러 인용했을 정도입니다. 팔란티어의 기술은 실제로 전장에서 목표물을 추적하고 사살하는데 쓰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그 기술이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제공되어 불법 이민자를 길거리에서 추적하고 대규모로 추방하는 작전에 쓰였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휘말릴 위험을 안은 채로 말입니다. 한때 진보주의자였던 카프는 시민 단체와 언론의 거센 비난과 시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파시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권위주의 정권의 손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폭압적인 무기가 될 기술을 적극적으로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거조차 어떻게 이 모순을 합리화할 수 있는지(square that circle) 뼈아프게 묻습니다.

카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지정학적 논리로 정면을 칩니다. 팔란티어의 기술이 파시즘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세계를 파시즘의 위협에서 구원(save)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에 따르면 서구 문명이 자유와 법치를 지킬 유일한 길은 압도적인 군사 기술과 하드 파워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억지력(deterrence)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그는 팔란티어의 데이터 기술이 유럽 곳곳에서 일어날 뻔한 수많은 테러를 사전에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 덕분에 대중이 공포에 휩싸여 극우 파시즘 정당에 몰표를 던지는 파국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셈법은 이렇습니다. 테러를 막지 못하면 사람들은 겁에 질려 파시스트를 뽑는다. 그러니 테러를 막는 감시 기술이야말로 파시즘을 막는 방파제다.

이민 단속 논란에서도 그의 태도는 현실주의로 일관합니다. 진보 좌파가 무분별한 이민에 대한 유권자의 진지한 우려를 가볍게 흘려버린다면, 결국 유권자는 그 문제를 무자비하게 해결해 줄 우파 포퓰리스트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까지 탄생시킨 까닭이라고 그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에게 국가가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압도적인 인공지능 무기 체계를 쥐는 것은,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파시즘을 막는 댐입니다.

정작 그는 자신을 우파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좌파가 자기를 떠났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마르크스주의자였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표를 줬던 그가, 지금은 민주당을 향해 누구보다 날 선 말을 쏟아냅니다. 좌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좌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 그의 표현입니다. 진보 가정에서 자란 진보주의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술을 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를 보수로 못 박으면 그가 평생 품어온 이방인의 두려움이 설명되지 않고, 그를 진보로 묶으면 ICE에 넘긴 데이터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양쪽 어디에도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장의 그 아이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그는 어느 집단의 진짜 일부가 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논리가 옳은지 그른지는 이 책이 답하지 않습니다. 답해서도 안 됩니다. 카프 자신도 그 답을 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파시즘을 막으려고 파시즘의 도구를 만든다는 그의 셈법은, 보기에 따라 명석한 현실주의일 수도 있고 위험한 자기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다만 한 가지는 또렷합니다. 그 두려움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30년 전 어린아이가 했던 말과 십여덟 어른이 하는 말이 같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다시 그 일화로 돌아가 봅시다. 2016년, 루이 모즐리(Louis Mosley)라는 영국 청년이 팔란티어의 면접을 보러 카프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오스월드 모즐리(Oswald Mosley), 20세기 영국 최악의 인물로 꼽히는 악명 높은 파시스트 지도자였습니다. 루이는 그 꼬리표 때문에 영국에서 번번이 경력에 발목이 잡혀왔습니다. 진보적이고 유대계 혈통인 CEO 앞에서 그는 자신의 출신이 또 한 번 치명타가 되리라 확신하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카프의 반응은 누구의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루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카프는 그의 할아버지 오스월드 모즐리가 1939년에 했던 그 악명 높은 파시스트 연설을 대본 한 장 없이 수 분 동안 통째로 외워 읊기 시작했습니다. 파시즘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파시스트의 연설을 토씨까지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깊으면 그 대상을 그만큼 깊이 파고들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낭송을 마친 카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공에 대고 태극권 동작을 몇 번 시연하더니, 인사 한마디 없이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가버렸습니다. 면접을 망쳤다고 확신하며 망연자실해 있던 루이 모즐리는, 뜻밖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팔란티어의 영국과 유럽 사업을 이끄는 핵심 임원입니다.

이 한 장면 안에 카프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파시즘에 대한 병적인 집착,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보는 고집, 검을 휘두르고 인사도 없이 사라지는 기행. 그는 파시스트의 손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문의 죄로 사람을 단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두려워하는 파시즘의 정반대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그 파시즘이 손에 쥐면 인간을 행정 단위로 환원해 추적하고 사살할 기술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 안에서, 같은 하루 안에서, 두 일이 함께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한 단어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를 괴짜 천재로만 그리면 컵케이크 아이싱과 노르웨이 스키복만 남고 두려움이 지워집니다. 그를 냉소적 권력자로만 그리면 ICE에 넘긴 데이터만 남고, 30년을 닳지 않은 그 공포가 지워집니다. 둘 다 그입니다. 빈집에서 혼자 스키를 타는 은둔자이자, 세상의 데이터를 한 화면에 꿰는 감시 제국의 주인입니다. 파시즘이 오면 제일 먼저 벽에 매달릴 사람이라고 떠는 이방인이자, 그 벽을

세울 수도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경영자입니다.

눈 덮인 라이먼의 숲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여전히 거기서 혼자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폴을 짊고, 입김을 뿜고, 19킬로미터를 달립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달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것인지, 그 자신도 끝내 분명히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빈집으로 데려갔고, 두려움이 그를 거대한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두려움이 한 사람을 정반대의 두 곳으로 동시에 끌고 갔습니다. 그 모순은 봉합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봉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파시즘을 제일 두려워한 사람이 세운 감시 제국. 그 문장 하나가 풀리지 않은 채 눈발 위에 남아 있습니다.



계곡의 이단아: 알렉스 카프, 파시즘을 두려워한 사람이 세운 감시 제국

ISBN

저자 | 김경진

펴낸이 | 김경진

펴낸곳 |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출판사등록 | 2025. 3. 10. (제2025-000015호)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91, 백일빌딩 304호

전화 | 02-6338-1905

이메일 | kimkj008@gmail.com

가격 : 20,000원

© 김경진 2026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참고) 이 책 속의 클레이3D 슬라이드와 그래프는 인공지능(NotebookLM)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권두 인물 사진 - Ben Dance / No.10 Downing Street (CC BY 2.0). 본문 다보스 회담

사진 - Presidencia de la Republica del Ecuador (Public Domain). 모두 Wikimedia Commons.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